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지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건축적 영감을 바탕으로 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2025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산업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김 대 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건축적 영감을 바탕으로 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한 지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산업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대 은

인 준 서

김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김 주 덕 (인)

심 사 위 원 신 정 원 (인)

심 사 위 원 한 지 수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 개요

기술의 비약적 진보와 극심한 경쟁이 맞물린 오늘날 사회에서는 많은 정신 질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그림자로 떠오르는 정신 질환은 더 이상 낫설지 않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정서를 언어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아트메이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인체를 살아 있는 캔버스로 삼는 메이크업은 감정과 심리 상태를 형태로 즉각 변환할 수 있는 점에서 독창적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신 질환에서 비롯된 감정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트메이크업에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건축 미학적 요소를 접목하였다. 가우디의 건축물이 지닌 유기적인 곡선, 다채로운 색채와 구조는 감정의 흐름, 내면의 갈등과 균형 등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연구 방법으로 먼저 가우디의 작품과 건축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후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신 질환의 정체성을 탐색해 메이크업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조형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총 8점의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여 정신 질환 환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상태와 증상들을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가우디의 생애와 대표작품들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 세계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신 질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결성을 탐색하였다. 둘째, 아트메이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예술적 표현과 정신 질환 정체성을 고찰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총 8점의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창작하여 정신 질환 환자들의 감정의 흐름과 다양한 증상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 II는 가우디의 작품 중 카사 밀라(Casa Mila)와 카사 바트요(Casa

Batlló)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불안하고 긴장된 심리 상태를 시각화하였다. 작품 I에는 불안 장애의 대표적 증상인 불안함을 건축물에 나타나는 유기적인 곡선으로 재해석하였다. 메이크업은 윤곽을 따라 단편적인 선으로만 표현했지만 배경에는 메이크업 선과 연결해 곡선의 흐름을 다채롭게 표현하며 작품에 반전 요소를 넣었다. 배경과 메이크업의 역설적인 배치로 불안 장애로 보여지는 불안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작품 II는 건축물에 나타나는 질감과 색채감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불안 장애 환자들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함과 긴장감이 보는 이들한테는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반영해 모델의 얼굴에 대비되는 색감으로 메이크업하였다. 작품의 배경에는 환자 본인이 오롯이 감내하는 감정의 고통을 건축물의 질감으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모델의 검혀한 표정을 통해 타인에게 내색할 수 없는 환자들의 답답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 VI는 구엘 공원(Park Güell)을 착안해 제작한 작품이다. 조울증 환자들이 겪는 증상과 그들의 심리 상태를 공원의 대표적 소재인 트렌카디스 타일과 자연의 불규칙한 곡선, 패턴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구엘 공원에 나타나는 다채로운 색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울증의 양면적인 증상을 얼굴에 패턴화하였다. 일관적이지 못한 조울증의 증상들이 메이크업에도 잘 드러나도록 패턴을 불규칙하게 배열하였다. 작품의 배경은 트렌카디스 타일을 통해 표현했는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증상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자 있는 그대로 시각화하였다. 조증과 우울증이 감정의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가장 대비되는 색감인 빨강색과 파란색을 사용해 시각적인 표현을 극대화하였다.

작품 VI는 양극화된 감정을 경험하는 환자들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구엘 공원 특유의 밝은 색상과 자유로운 패턴을 활용해 반어적인 느낌으로 경쾌하게 메

이크업하였다. 하지만 결국 환자들의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정신 상태를 배경으로 표현하며 좌절감에 갇혀 사는 환자들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작품Ⅳ,Ⅴ,Ⅶ,Ⅷ은 가우디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Sagrada Familia)을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우선 작품 Ⅳ,Ⅴ의 경우 성당의 유기적인 건축 구조와 곡선미, 스테인드글라스의 색채감과 빛을 활용해 연출하였다. 작품Ⅳ에는 강박장애 환자들에게 보이는 반복적인 패턴이 작품에 통일적으로 표현된다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한 색채감과 추상적인 패턴으로 밝고 활기차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결국 강박장애 환자들에게 보이는 증상들은 반복적일 수 밖에 없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나타나는 빛의 반복적인 패턴을 작품의 배경으로 녹여내며 강박 증상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작품Ⅴ는 강박장애 환자들의 심리 상태와 그 안에서 개선되고자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환자들에게 경험하는 압박감과 괴로움은 오래된 나무의 차분한 색상으로 메이크업하였다. 하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자들의 마음도 공존하기 때문에 나뭇가지에서 피어나는 꽃과 스테인드글라스가 비추는 따뜻한 색감으로 작품의 배경을 희망적으로 나타내었다.

작품Ⅶ,Ⅷ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가지는 고유한 분위기를 착안하였다. 작품Ⅶ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보이는 환청, 환각의 증상들을 표현하였다. 조현병의 증상들이 보통 격양되고 두서없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작품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담아 증상이 가지는 편견이 사라지도록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은 편안하고 넉넉한 톤으로 연출하며 작품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반대로 작품Ⅷ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느끼는 우울감과 혼란스러움을 표현하였다. 환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내면을 가진 채 일상을 살아가는지 작품의 배경에 표현해 보았다. 정신없는 의식의 흐름이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힘들게 침투했는지 역동적이고 극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려 나타내었다. 스스로

가 외면을 가꾸지 못하는 여유 없는 상태를 강렬한 입술 색으로 표현하며 무연의 외침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신 질환을 겪는 이들의 내면과 증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하며 단순한 미적 연출을 넘어 공감과 이해의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트메이크업을 실험적 매체로 활용한 결과, 이 분야가 전통적 미용을 넘어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적 예술 언어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정신 질환의 특성에 맞춘 기법을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전시 및 미디어 활용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2
II. 이론적 배경	4
1. 안토니 가우디	4
1) 안토니 가우디의 생애	5
2)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세계와 건축적 특징	7
2. 안토니 가우디의 주요작품	12
1) 사그라다 파밀리아	12
2) 구엘 공원	18
3) 카사 바트요	23
4) 카사 밀라	29
3. 정신질환과 예술	35
1) 정신 질환을 소재로 한 예술	36
2)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과 정신 질환 표현의 연결성	41
4. 아트메이크업	43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44
2) 아트메이크업을 통한 정신 질환적 표현	46

Ⅲ. 작품 제작	48
1. 제작 의도 및 방법	48
2. 작품 설명 및 제작 과정	50
Ⅳ. 결론	84
1. 요약 및 결론	84
2. 한계점 및 제언	8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예술 작품으로 보는 정신 질환	40
<표 2> 작품 제작 계획	49
<표 3> 작품 I 디자인과 구성 내용	52
<표 4> 작품 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57
<표 5> 작품 I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61
<표 6> 작품 IV 디자인과 구성 내용	65
<표 7> 작품 V 디자인과 구성 내용	69
<표 8> 작품 VI 디자인과 구성 내용	73
<표 9> 작품 V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77
<표 10> 작품 VI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81
<표 11> 작품 결과 정리	83

그림 목 차

<그림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17
<그림 2> 탄생의 파사드	17
<그림 3> 수난의 파사드	17
<그림 4> 영광의 파사드	17
<그림 5>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첨탑	17
<그림 6>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기둥	17
<그림 7> 구엘 공원 입구	22
<그림 8> 드래곤 계단	22
<그림 9> 시장 홀	22
<그림 10> 세라믹 벤치	22
<그림 11> 자연과 하나 된 구엘 공원	22
<그림 12> 구엘 공원의 모자이크 타일	22
<그림 13> 카사 바트요	27
<그림 14> 카사 바트요의 파사드	27
<그림 15> 카사 바트요의 트렌카디스 기법	27
<그림 16> 카사 바트요의 지붕	27
<그림 17> 카사 바트요의 중앙 안뜰	27

<그림 18> 카사 바트요의 창문	27
<그림 19> 카사 바트요의 프레임	28
<그림 20> 카사 바트요 발코니	28
<그림 21> 카사 바트요 현관 입구	28
<그림 22> 카사 밀라 외관	33
<그림 23> 카사 밀라 발코니	33
<그림 24> 카사 밀라의 내부 평면도	33
<그림 25> 카사 밀라의 안뜰	33
<그림 26> 카사 밀라의 내부	34
<그림 27> 카사 밀라의 옥상	34
<그림 28> 카사 밀라의 커튼월 모형	34
<그림 29> 카사 밀라 모형	34
<그림 30> 작품 I - 공허한 맥박	53
<그림 31> 작품 II - 불안의 소용돌이	58
<그림 32> 작품 III - 기분의 파편	62
<그림 33> 작품 IV - 감정의 소용돌이	66
<그림 34> 작품 V - 빛의 강박	70
<그림 35> 작품 VI - 번식하는 집착	74
<그림 36> 작품 VII - 분열된 성소	78
<그림 37> 작품 VIII - 공명하는 환영	8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우울, 불안,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 질환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언어 이외의 수단을 통한 공감과 소통은 미흡한 실정이다¹⁾.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은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고 치유를 모색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시각예술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그중에서도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은 신체를 캔버스로 삼아 감정과 정신 상태를 독창적으로 시각화하는 예술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²⁾.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예술과 정신세계의 접목 가능성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왔으며, 심리적 꿈과 정신 질환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려는 연구나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메이크업을 활용한 시도가 보고된 바 있다³⁾. 메이크업은 신체의 곡선을 사용해 감정과 미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를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건축적 특성과 결합한다면⁴⁾ 메이크업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신 질환의 내면세계를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제안. 구체적으로, 가우디 건축에 나타난 조형적

1) 고명수(2018). 정신건강론, 경기도 : 정민사, pp.3-5.

2) 이병창(2024). (헤겔 미학 산책) 정신의 표현 기호로서 예술, 서울 : 먼빛으로, pp.10-12.

3) 이충현(2023). 꿈과 정신 질환의 시각화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49.

4) 박주영(2013).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자연유기적인 구조 형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

특징을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의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인 감정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 질환을 겪는 이들의 내면적 고통과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우디의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신적 혼란과 균형, 고통과 아름다움의 상반된 감정을 조화롭게 시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의 주요 건축적 요소인 곡선과 기하학적 패턴, 색채 표현을 기반으로 정신 질환의 심리적 특성을 시각화하는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 질환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가우디의 작품 세계는 유기적인 곡선과 풍부한 색채, 상징적 형태를 통해 인간의 영성과 자연관을 표현한 독창적 예술로 평가된다⁵⁾. 가우디의 조형미는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예술 영역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으며, 그의 미학을 뷰티 예술에 응용하려는 시도도 일부 이루어졌다⁶⁾. 가우디 건축의 형태미를 헤어 디자인에 접목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메이크업 분야에서 가우디 미학을 활용한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⁷⁾.

5) Meirelles, C. R. M., & Beraldo, P. N., & Nazareth, S. B. M.(2019). Geometric Shape, Structure and Material in Antoni Gaudi's Work: The Colònia Güell Crypt and the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ilia,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13(10), pp.608-621.

6) 김양희(2011). 미술교육적 관점에서 본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46.

7) 안현주 & 장미숙(2011). 안토니 가우디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7(2), pp.345-354.

본 연구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이 단순한 미용을 넘어 예술로서 정신적 문제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우디의 건축물에 나타나는 구조, 색채, 질감 등과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아트메이크업에 반영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았다.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에 바탕이 될 가우디의 건축물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가우디의 여러 가지 작품 중 작품의 제작 배경이 된 건축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후 건축물에서 특징이 되는 요소 중 표현하려는 정신 질환에 맞는 요소를 찾아 작품의 컨셉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 과정을 ‘스케치-제작-편집 기술 활용’의 단계로 살펴보며 정신 질환이 어떻게 상징적 작품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의 아트메이크업 제작 연구 중 디자인 계획 후 작품 제작만 다루고 편집이나 후보정 과정을 생략하거나⁸⁾ 연구 방법 항목이 작품 제작에서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며 제작 이후의 단계가 부재된 선행 연구가 있다⁹⁾. 본 연구자는 편집 프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적·상징적 표현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두 가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예술과 뷰티 융합이 정신건강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향후 예술 중심 정신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밑거름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8) 손기기 & 장수월 & 김혜균(2024). 앙리마티스 회화에 나타난 시대별 특징과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학회지, 22(2), pp.279-292.

9) 김소라 & 한가영 & 하문선 & 김선희 & 홍인선(2014).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4(2), pp.197-208.

II. 이론적 배경

1. 안토니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1852-1926)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현대 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예술가이다¹⁰⁾. 그의 작품은 유기적 형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그리고 기하학적 요소의 독창적인 결합으로 유명하다. 그의 생애와 작품도 고딕, 아르누보(Art Nouveau), 그리고 자연의 조화라는 특징이 있다. 가우디는 현대 건축의 한계를 넘어서는 미학적 실험과 기술 혁신을 통해 건축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¹¹⁾. 그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곡선과 불규칙한 형태를 건축에 녹여내어, 작품 전체를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게 완성했다¹²⁾. 가우디의 대표작으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구엘 공원(Park Guell), 카사 밀라(Casa Mila), 카사 바트요(Casa Batllo)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은 모두 자연적 형태와 강렬한 색채의 활용이 두드러진다¹³⁾.

가우디는 건축을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이 아닌, 자연의 흐름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으로 보았다¹⁴⁾.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형태로 간주한 가우디는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구축했다¹⁵⁾.

10) 김리원(2023). 안토니 가우디에 대한 연구, *속명디자인학회지*, 35, pp.11-16.

11) Nasir, O., Akhtar, W., Iqbal, M. F., & Kamal, M. A.(2022). Analyzing the Architecture of Antonio Gaudí with Reference to Art Nouveau Style: An Inspiration from Nature,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Science*, 3, p.309.

12) Ramzy, N. S.(2022). Beyond Sustainability, Design for Well-Being: Gaudí's Monument to Nature, Biomimetic Functions with Biophilic Morphology, *Journa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28(1), p.5.

13) 최은영(2006). 안토니 가우디 코르네(Antoni Gaudi Comet) 건축의 조각적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30.

14) Crippa, M. A.(2003). *Antoni Gaudí, 1852-1926: From Nature to Architecture*, Taschen, p.9.

1) 안토니 가우디의 생애

안토니 가우디는 카탈루냐 출신 구리세공 장인의 막내아들로, 폐병과 류머티즘 탓에 또래보다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가우디는 자연 속에서 드러난 생명력 있는 곡선, 기하학적 형태, 빛과 그림자의 특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유년 시절이 곡선·유기적 형태·빛과 그림자를 강조한 그의 독창적 건축미학의 토대가 되었다¹⁵⁾.

1869년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건축 공부를 시작했으며¹⁷⁾, 그는 전통 건축기법을 익히면서도 자연미와 혁신을 추구해 기존 틀을 넘어섰다. 1878년 바르셀로나 건축학교를 졸업해 건축가 자격을 얻었으며, 학창 시절부터 곡선·기하학적 형태, 고딕 장식, 이슬람 패턴에 매료돼 독창적 스타일을 만들어나갔다. 당시 일부 평단은 가우디의 파격적인 비전을 “천재와 광인의 경계”라 평가했다¹⁸⁾.

산업화로 변형하던 바르셀로나에서 아르누보 영향을 받은 초기 작품으로 가우디는 본격적인 건축 활동을 시작했다¹⁹⁾. 아르누보는 자연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곡선, 유기적 패턴, 꽃과 식물 모티브가 특징으로, 이 스타일을 가우디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소화하여 그의 개성을 확립했다²⁰⁾. 가우디는 활기찬 예술·기술 환경을 발판 삼아 카탈루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전통적 기법과 재료에 새로운 미학을 결합해 독창적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다.

가우디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기업가이자 정치가였던 에우세비 구엘(Eusebi Guell)이다²¹⁾. 당시 구엘은 스페인 왕정의 건축가였는데, 가우디

15) 김양희(2011). 전계서, pp.26-33.

16) Azevedo, V. F., & Diaz-Torne, C.(2008). The arthritis of Antoni Gaudí, JCR: Journal of Clinical Rheumatology, 14(6), pp.367-369.

17) 이리에 마사유키(2017). 안토니오 가우디, 서울: AK Trivia Special, pp.14-15.

18) Crippa, M. A.(2003). 전계서, p.8.

19) Mackay, D.(1985). Modern architecture in Barcelona, Londres: Anglo-Catalan Society.

20) 최미현(2012). 안토니오 가우디의 아르누보 양식을 모티브로 한 헤어디자인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20.

의 창의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대표적으로 구엘 공원과 구엘 저택(Palau Guell) 등이 있으며, 이는 가우디의 초기 건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다²²⁾. 이러한 후원 덕분에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적 실험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가우디는 생애 후반기에 깊은 종교적 신념에 빠져들었으며, 그의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철저 금욕적인 삶을 선택했다²³⁾. 그의 종교적 헌신은 작품의 모든 요소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가 신에게 바친 기념비적 작품이 되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의 설계와 건축에 평생을 바쳤으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예술적 열정을 결합시킨 작품으로 여겼으며, 이를 통해 신과 자연,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다²⁴⁾.

1926년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시신은 미완성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장되었다²⁵⁾. 가우디는 마지막 날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 현장에서 보내며, 건축과 종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²⁶⁾. 그의 죽음 이후에도 제자들과 후배 건축가들은 가우디의 설계를 따라 성당 건축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에도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남아 있다.

21) Santamaria, C. R.(2023). The The Guell Pavilions of Antoni Gaudi as an example of new mythology, *De arte: revista de historia del arte*, (22), pp.225-245.

22) 조명화(2016). 구엘공원, 서울: 교보문고.

23) Crippa, M. A.(2003). 전게서.

24) 박무귀(2018). 이야기가 있는 사진 여행-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사학회지*, 591, pp.98-101.

25) Azevedo, V. F., & Diaz-Torne, C.(2008). 전게서.

26) 장열근(2002). 유럽 테마여행, 서울: 서울문화사, pp.40-41.

2)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세계와 건축적 특징

가우디는 유기적 형태, 기하학적 패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통해 건축 작품을 남겼다²⁷⁾. 그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을 추구했기 때문에 건축, 장식, 공예, 그리고 도시 설계 간에 벽을 두지 않았다. 또한 가우디는 자연을 가장 큰 스승으로 삼아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건축물을 설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예술·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를 창조했고²⁸⁾, 자연이 지닌 규칙성과 불규칙성, 조화와 균형의 개념을 반영해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그의 작품에 나타내었다²⁹⁾.

(1) 유기적 곡선과 비대칭성

가우디의 건축물에서는 나무의 줄기나 잎, 동물의 뼈 구조, 지형의 곡선 등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곡선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건축 구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그는 직선이나 기하학적인 대칭을 배제하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 곡선을 건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곡선은 그의 건축물이 단순한 인공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³⁰⁾.

가우디는 자연을 일부인 듯한 느낌을 주었다³¹⁾. 카사 밀라의 외관은 곡선형 파사드가 마치 산맥이나 물결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³²⁾, 이

27) Crippa, M. A.(2003). 전계서, pp.6-11.

28) Nasir, O., & Akhtar, W., & Iqbal, M. F., & Kamal, M. A.(2022). 전계서. p.317.

29) 이혁진 & 임근욱(2011).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의 이해,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1(1), pp.1-10.

30) 손연자(2001). Gaudi 건축에 나타난 조형성과 색채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20.

31) 박홍식(2007). 유럽의 도시와 건축 이야기, 대전: 관성문화사, pp.118-120.

32) Liu, J.(2017). Anatomy of Gaudi's Curve Architectural Language,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6(7), pp.33-38.

는 자연 속에서 탄생한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러한 곡선적 디자인은 비대칭적인 배치와 함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건축물에 동적인 느낌을 불어넣었다.

(2) 색채와 장식성

가우디의 작품에서 색채와 장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건축물에 색채를 생동감 있게 적용하여 단조롭지 않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였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건축물을 장식적으로 완성하였다³³⁾.

가우디는 다채로운 색채의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하여 그의 작품을 장식하였다³⁴⁾. 그의 작품에서는 다채로운 색상이 눈에 띄며, 이는 타일 유리, 세라믹 등의 다양한 재료를 통해 구현되었다. 이는 특히 구엘 공원에서 두드러지는데, 구엘 공원의 벤치와 구조물은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모자이크 타일로 덮여 있어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었다³⁵⁾. 이 기법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 타일과 같은 작은 단위의 재료를 통해 복잡하고 독창적인 패턴을 창출했으며, 구조물 전체에 장식적 화려함을 더해 주었다³⁶⁾.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다른 일조량이 창문으로 투과될 수 있도록 설계해 영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성당 내부에서 빛은 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 색상의 배치, 그리고 건축물의 재료 선택까지 모두 감각적 경험을 고려한 것이다³⁷⁾.

33) 정은주(2004). 가우디 건축모티브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37.

34) Liu, J.(2017). 전계서.

35) 안현주(2011). 안토니 가우디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7-349.

36) 김수인(2023). 가우디 건축물의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한 무용창작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4.

37) 김희곤(2007). 빛의 그림자, 그림자 Space, Lighting and Shadow, 월간 CONCEPT학회지, 100, p.160

(3) 기술적 혁신과 구조적 실험

당시 가우디의 건축 설계는 매우 혁신적이고 실험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설계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정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였다³⁸⁾.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보여지는 하이퍼볼릭 패러볼라(쌍곡형 곡선)구조와 같은 기하학적 원리는 건축의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였다³⁹⁾. 가우디는 고딕과 바로크의 장식을 응용하면서도, 직선보다 곡선과 비대칭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선호했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패러볼라와 같은 기하학적 곡선을 건축 구조에 적용하였다⁴⁰⁾. 이 기법은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돔과 아치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곡선 형태는 자연스럽게 하중을 분산시켜 건물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공간의 역동성과 웅장함을 부여하였다⁴¹⁾.

성당의 내부 기둥들을 보면 상단에서 나무의 가지처럼 갈라져 있는데 이러한 기둥 구조는 건물의 무게를 분산시키며⁴²⁾, 내부 공간의 개방감과 높이를 극대화한다. 건축물이 하중을 더 튼튼하게 견딜 수 있게 하고,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역할도 가진다. 나아가 가우디는 자신의 설계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모형을 거꾸로 매달고 각 지점에 무게를 달아 실제 건물의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실험을 하였다⁴³⁾. 이를 통해 건물의 하중 분산과 안정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은 그가 독창적인 건축 구조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8) Huerta, S.(2006). Structural design in the work of Gaudi,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49(4), p.335.

39) Huerta, S.(2006). 전게서, pp.324-339.

40) 문태선(2021). 수학이 보이는 가우디 건축여행, 경기도: 궁리, pp.194-205.

41) 정수철(2019). 가우디의 기호들·사그라다 파밀리아, 경기도: 좋은땅.

42) Huerta, S.(2006). 전게서, p.326.

43) Makert, R., & Alves, G.(2016). Between designer and design: Parametric design and prototyping considerations on Gaudis Sagrada Familia. *Periodica Polytechnica Architecture*, 47(2), pp.89-93.

(4) 자연과의 조화

가우디는 자연을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체와 구조물들은 그의 설계에 깊이 반영되었다⁴⁴⁾. 가우디는 자연이 지닌 유기적 형태와 구조가 건축물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이 인간에게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⁴⁵⁾.

가우디가 자연을 건축의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담고 있으며, 자연의 형태뿐만 아니라 자연의 원리까지도 건축에 반영하였다⁴⁶⁾. 이는 건축물을 환경과 하나로 융합시키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중요한 철학적 접근이며 실제로 그의 작품에서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하나로 융합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⁴⁷⁾. 구엘 공원의 경우, 건축물은 주변의 지형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인다. 건물의 곡선과 비대칭 구조는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한 형태를 모방하며, 인공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⁴⁸⁾.

또한 그는 건축물 내부에 채광과 환기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도록 설계하였다. 카사 밀라의 파사드를 보면 대부분 곡선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제 난간과 발코니 장식 또한 유기적 형태로 설계되었다⁴⁹⁾. 특히 중앙에 위치한 중정을 통해 채광과 환기가 모든 층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이러한 설계는 건축물의 미학적

44) Strickland, C.(2010). 클릭, 서양건축사, 서울: 예경, pp.212-214.

45) Ramzy, N. S.(2022). 전계서.

46) 박소정(2004).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모테르니즘(Modernismo) 건축,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47.

47) Emekci, S.(2022). Using Nature in Architecture: A perspective from Antoni Gaudi, Avrupa Bilim ve Teknoloji Dergisi, (34), pp.87-91.

48) 이현숙(2018). 잠깐이어도 팬찰아, 경기도: 부크크.

49) Emekci, S.(2022). 전계서, p.88.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인 목적도 함께 달성한 것이다. 그의 또 다른 대표적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기둥들은 단순히 숲속의 나무줄기를 연상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성당 전체에 채광이 녹아들게 하여 공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⁵⁰).

(5) 상징성과 종교적 의미

가우디의 건축물은 단순한 미적 구조물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의 종교적 신념은 건축물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건축을 통해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고, 건축을 하나의 영적 경험으로 승화시켰다⁵¹).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종교적 신념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인류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가장 위대한 상징”으로 구상하였으며⁵², 이를 위해 성경의 내용을 건축물에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성당의 모든 부분은 기독교적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18개의 탑은 예수, 마리아, 열두사도와 4명의 복음서를 상징한다⁵³. 성당의 파사드(입면)도 성경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섬세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다⁵⁴. 가우디는 성경의 내용을 건축물에 담아내어, 단순한 예배 공간 이상의 종교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50) 건축사 학회 블로그, (<https://www.sah.org/sah-blog>>2017/12/13. 검색 일자: 2024.11.03.).

51) 나동훈(1997). 인본주의 철학이 디자인에 미친 영향과 디자인의 종교적 도약 ‘leap’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46.

52) 카톨릭익스체인지, ([https://catholicexchange.com/sagrada Familia:A Symbol of Rediscovered Faith](https://catholicexchange.com/sagrada-Familia:A-Symbol-of-Rediscovered-Faith). 검색 일자: 2024.11.03.).

53) Rose, M. S.(2000). Antoni Gaudi: God’s Architect,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Sacred Architecture, 3(2), pp.2-12.

54) 노유미(2014).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조형요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7.

2. 안토니 가우디의 주요작품

안토니 가우디는 자연의 곡선과 질감을 건축에 그대로 옮겨 놓으며⁵⁵⁾, 예술적 감수성과 독창적인 구조 공학을 완벽히 융합하였다⁵⁶⁾. 그의 건물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⁵⁷⁾ 사실은 가우디가 오늘날까지 건축계의 교본으로 남아 있음을 방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네 작품 외에도 팔라우 구엘, 카사 비센스, 콜로니아 구엘 크립트, 토레 벨레스과르드, 카사 칼벳, 카사 보티네스 등⁵⁸⁾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해 가우디 미학의 스펙트럼을 한층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대표작이자 그의 건축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으로 그의 종교적 신념과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결합한 상징적인 건축물이다⁵⁹⁾. 그는 이 성당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전”으로 구상했으며⁶⁰⁾, 이를 위해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독창적인 구조를 적용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성당의 기둥은 나무처럼 갈라져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형상을 띠고 있으며, 내부는 성스러운 숲을 연상시킨다. 가우디는 건물의 형태가 자연을 모방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 성당은 그 철학의 완벽한 구현물이다⁶¹⁾. 그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며, 상징적 기법을 통해

55) Emekci, S.(2022). 전계서, pp.87-91.

56) Huerta, S.(2006). 전계서, pp.324-339.

57)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https://whc.unesco.org/en/list/320/>, 검색 일자: 2024.11.05.)

58) Moreno-Navarro, A. G.(2019). Antoni Gaudí, a lone wolf in European architecture, *Catalan Historical Review*, pp.57-72.

59) 장서원(2022). [LOCAL & GLOBAL] 가우디의, 가우디에 의한, 가우디를 위한 조형예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월간사진학회지*, 651(2022), pp.136-139.

60) 사그라다 파밀리아, (https://sagradafamilia.org/Antoni_Gaudí_Humanism_and_spirituality, 검색 일자: 2024.11.05.).

인간과 자연, 신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이 성당은 1882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가우디는 1883년 프로젝트를 맡아 생애 대부분을 바쳐 설계하고 건축에 매진하였다⁶²). 비록 그가 1926년에 사망하면서 완공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독창적인 설계와 기법은 현재까지 이어져 성당의 완성을 목표로 한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1) 성당의 입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크게 세 개의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파사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상징한다⁶³).

탄생의 파사드(Nativity Fasade)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당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⁶⁴). 가우디는 탄생의 파사드에 풍성한 조각과 자연적 요소를 더해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강조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파사드는 복잡하고 풍부한 조각으로 가득하며, 탄생 장면과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탄생의 파사드는 세계의 입구로 나뉘며,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한다⁶⁵).

수난의 파사드(Passion Fasade)는 성당의 서쪽에 위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희생을 표현한다⁶⁶). 수난의 파사드는 <그림 3>에서 보듯이 날카롭고 각진 구조가 특징이며, 예술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우디는 수난의 파사드가 보는 이들에게 잠정적 충격을 주기를 원했으며, 성경 속 장면들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⁶⁷).

61) Roland, Francois Rene.(1997). 가우디의 작품, 서울: 집문사, pp.138-147.

62) Rose, M. S.(2000). 전계서, p.4.

63) 스텔라 히로유키(2009).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축 이야기, 서울: 까치.

64)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1.07.).

65) 바르셀로나 티켓, (<http://www.barcelona-tickets.com/>, 검색 일자: 2024.11.09.).

66)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1.13.).

67) 사그라다 파밀리아 블로그, (<http://blog.sagradafamilia.org/>, 검색 일자: 2024.11.13.).

영광의 파사드(Glory Fasade)는 성당의 정면이자 주 출입구로, 가우디 사후에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었다⁶⁸⁾. 이 파사드는 성스러움과 인간의 구원을 상징하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묘사한다. 영광의 파사드는 가우디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림 4>와 같이 그가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재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⁶⁹⁾.

(2) 성당의 내부 설계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부는 마치 신비로운 숲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우디는 기둥들을 나무처럼 디자인하여 나뭇가지가 서로 얽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기둥 구조는 기존의 중세 성당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로, 성당 내부를 더욱 넓고 밝게 만든다. 특히, 높이 솟은 기둥들이 마치 숲의 나무처럼 서로 교차하여 성당의 천장을 지탱하며, 방문자들에게 신성한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⁷⁰⁾.

가우디는 성당에 들어오는 자연광을 신성한 빛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창문에 다양한 색상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였다⁷¹⁾. 스테인드글라스는 시간에 따라 빛이 달라지며, 성당 내부를 다양한 색으로 물들여 신성한 경험을 선사한다. 빛과 색은 가우디의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방문객이 예배와 명상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⁷²⁾.

68) 건축 다이제스트, (<https://www.architecturaldigest.com/story/la-sagrada-familia-everything-you-need-to-know>, 검색 일자: 2024.11.20).

69) 사그라다 파밀리아 티켓, (<http://www.sagrada-familia-ticket.com/facades>, 검색 일자: 2024.11.20).

70) 정여울(2023). 정여울의 나란히 한 걸음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건축의 힘: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나라경제학회지, 34(12), pp.66-69.

71) Fundacio Junta Constructora del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ilia.(2022). Information Booklet 9: Interior of the Basilica (Eng.), p.4

72) 문주현(2007). 종교건축에서 있어서 분석심리학의 원형적 표상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6-157.

(3) 첨탑과 상징성

<그림 5>를 보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개의 첨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각의 첨탑은 가톨릭 신앙의 인물들을 상징한다. 12개의 첨탑은 예수의 열두 제자를, 4개의 첨탑은 복음서를, 1개의 첨탑은 성모 마리아를, 마지막 1개의 가장 높은 첨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⁷³⁾. 이 중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첨탑은 완공 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첨탑이 될 예정이며, 이는 가우디가 성당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려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⁷⁴⁾.

(4) 건축기법과 혁신성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곡선과 비정형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직선 위주의 건축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당시 건축에 사용되던 직선 구조 대신 곡선 기둥과 나선형 계단을 사용하여 성당 내부를 더욱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가우디는 중력에 따른 압력 배분을 고려하여 기둥과 아치의 설계를 체계화했고, <그림 6>과 같은 이러한 구조는 건축물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혁신적 기법이였다⁷⁵⁾.

가우디는 자신의 설계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대에 의해 완성되길 바랐으며, 이를 위해 그는 다수의 설계도와 모형을 남겨 후대 건축가들이 그의 계획을 이어가도록 하였다⁷⁶⁾. 현재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축은 가우

73) 성 크리스토폴 마갈라네스 동반자들 (<https://aletea.org/2022/12/15/sagrada-familia-finishes-towers-of-evangelists-1-uke-and-mark>, 검색 일자 2024.11.25).

74) 미다스 캐드, (http://www.midascad.com/cad_archive/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1.25).

75) 박선경 & 지상현(2004).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작품을 응용한 부조적 의상 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학연구학회지, 5(2), pp.394-401.

76) 이인화(2021). (중년 부부의) 좌충우돌 스페인 여행기, 서울: 북랩, pp.34-36.

디가 남긴 설계와 현대 건축 기술을 융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 건축가들은 가우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건축 기술을 활용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⁷⁷⁾.

(5)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예술적, 종교적 유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작품이다⁷⁸⁾.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이 신앙과 예술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길 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디자인은 오늘날까지 종교적, 예술적 유산으로 남아 있으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이자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⁷⁹⁾.

가우디의 독창적인 설계와 그의 영적 철학이 녹아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예술적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⁸⁰⁾, 가우디 사후에도 이어진 그의 유산은 성당이 완공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77) 김영(2018). (자동차로 떠나는) 스페인 가족여행, 서울: 북랩, pp.80-83.

78) 최철호(2015). (내가 가고 싶은) 유럽VS유럽, 서울: 시공사, pp.134-137.

79) 카사 바트요, (<http://casabatllo.es/>, 검색 일자: 2024.11.28.).

80) 사그라다 파밀리아, (<http://sagradafamilia.org/>, 검색 일자: 2024.11.28.).



<그림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spain-september-24-2015-temple-2523534355>
(검색 일자: 2024.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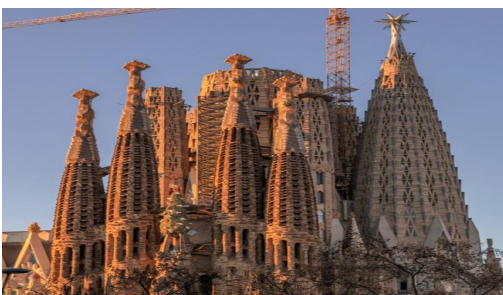
<그림 2> 탄생의 파사드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barcelonaspain-1272014-view-east-facade-1047646966>
(검색 일자: 2024.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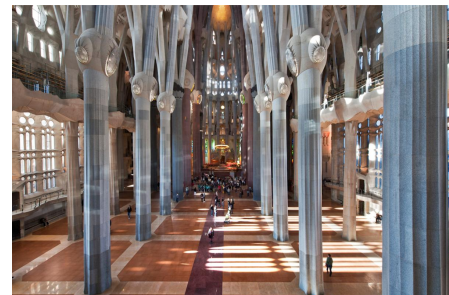
<그림 3> 수난의 파사드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july-19-view-famous-sagrada-1145587766>
(검색 일자: 2025.01.07.)



<그림 4> 영광의 파사드
출처: Glory Facade, Baptistry and Chapel of Penitence and the Sacrament (Booklet 8), Junta Constructora del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ilia, 2022, p.2.



<그림 5>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첨탑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spain-june-13-2019-aerial-1503812780>
(검색 일자: 2024.12.04.)



<그림 6>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기둥
출처: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2.04.)

2) 구엘 공원

구엘 공원은 바르셀로나 북쪽 언덕에 위치한 공공 공원으로, 가우디의 자연적 접근과 건축적 혁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공원은 원래 부유층을 위한 주택 단지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적 이유로 공원으로 변경되어 1922년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사업가 에우세비 구엘의 의뢰로 만들어졌으며, 이곳은 가우디의 자연에 대한 철학과 예술적 실험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⁸¹⁾. 공원의 각 부분은 자연과 어우러져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한 가우디의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⁸²⁾. 공원 내 여러 조각상, 계단, 광장 역시 가우디 특유의 독창성과 색채감각을 보여주며, 특히 모자이크로 장식된 뱀 모양의 벤치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⁸³⁾.

(1) 공원의 전체적인 구성과 건축적 의도

가우디는 구엘 공원을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하기 위해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였다. 그는 지형의 특성을 살려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계단과 산책로를 배치하였다⁸⁴⁾. <그림 7>에서 보이듯 건물 외관과 공원의 구조도 자연 속에 유기적으로 융화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공원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형태와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에 접목 시키는 가우디의 독창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⁸⁵⁾.

81) 조명화(2016). 전계서.

82) 박철민(2015).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인쇄, pp.243-244.

83) 정은주(2004). 전계서, pp.22-27.

84) 주매희(2011). 구엘공원과 타로공원의 탈장르화 현상, 유럽문화예술학회지, 2(2), pp.183-205.

85) 조규영(2012). 구엘공원 주거단지와 석조교량 소고, 건설안전기술학회지, (55), pp.37-51.

(2) 주요 건축 요소와 상징

공원의 입구를 지나면 등장하는 드래곤 계단(Escalinata del Dragon)은 구엘 공원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이다. 계단 중앙에는 <그림 8>과 같은 화려한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된 도마뱀 조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생명과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가우디의 상징주의를 담고 있다. 모자이크 조각은 트렌카디스(Trencadis) 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이 기법은 공원의 다양한 조각과 벤치에서도 나타난다⁸⁶⁾.

계단을 오르면 드래곤 계단 위에 위치한 <그림 9>의 시장 홀(Sala Hipostila)로 연결되는데 86개의 거대한 도리스식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⁸⁷⁾. 기둥의 배치는 비대칭으로 되어있으며, 기둥 위 천장은 작은 타일 조각들로 장식된 다채로운 모자이크로 덮여있다⁸⁸⁾. 천장의 모자이크는 해와 달, 천체 등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는 가우디가 자연 속에서 발견한 반복적인 패턴과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시장 홀 위의 중앙 광장에는 <그림 10>에서 보이는 긴 세라믹 벤치(Banc de Trencadis)가 있는데 독특한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재현하고 있고,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있다. 이 벤치는 사람들을 공원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하며, 모든 이들이 광장에서 바르셀로나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⁸⁹⁾.

86) 임남숙(2017). 가우디 예술분석 문화산업 활성 방안, 예술교육연구학회지, 15(4), pp.1-18.

87) Ciranna, S.(2016). Gaudi y la reinencion del orden arquitectonico. ArcHistoR, (6), pp.86-105.

88)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https://parkguell.barcelona/en/park-guell/emblematic-features/hypostyle-room>, 검색 일자: 2024.12.07.).

89) 최준석(2010). 어떤 건축, 서울: 바다, pp.34-36.

(3) 건축 구조와 기법

가우디는 구엘 공원의 설계에 있어 자연의 법칙과 형태를 깊이 연구하였다⁹⁰). 구엘 공원의 건축물은 나무, 동물, 바위 등 자연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공원의 구조 또한 이러한 자연적 형태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1>과 같은 시장 홀의 기둥은 나무 기둥과 같은 형태를 띠며, 숲속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는 자연과의 통합을 추구했던 가우디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⁹¹). 지형을 최대한 변경하지 않고 원래 지형을 따라 건축물과 구조를 배치하였다. 산책로와 다리 역시 자연의 형태를 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⁹²).

구엘 공원에서는 자연적 재료가 사용된 것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우디는 다채로운 색채와 독특한 타일 모자이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트렌카디스는 가우디가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적 타일 작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깨진 타일 조각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⁹³). 구엘 공원의 타일 모자이크는 생명력 넘치는 색감과 추상적 패턴으로 자연의 다채로운 면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가우디는 <그림 12>에 나타난 기법을 통해 예술적 자유와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⁹⁴), 이는 그가 자연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상상력을 더한 독창적 작품으로 완성 시켰다.

90) 최준석(2010). 전계서, pp.34-35.

91) 파크구엘-바르셀로나 티켓, (<https://park.barcelonatickets.org/the-hypostyle-room-in-park-guell-barcelona/>), 검색일자: 2024.12.07).

92) 박무귀(2018). 전계서.

93) 백경순 & 최은경(2015). 전시 문화아트상품 개발 프로세스 연구: 가우디 건축의 트렌카디스 모자이크 패턴을 적용한 문화아트상품을 중심으로: 가우디 건축의 트렌카디스 모자이크 패턴을 적용한 문화아트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애니메이션학회지, pp.32-33.

94) Langer, A., & Braga, A. V.(2021). Geometry and Color, Decoding the Arts of Islam in the West from the Mid-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pp.17-65.

(4) 구엘 공원의 유산적 가치와 지속성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자연 철학과 예술적 혁신을 대중과 나누는 장이 되었으며,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명소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공간이다⁹⁵). 이 공원은 현대 건축과 조경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탐구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예술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⁹⁶).

1984년 구엘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가우디의 건축적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하나이다⁹⁷). 구엘 공원의 독창적 디자인과 자연을 포용하는 철학은 현대 건축가와 조경가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적 조경 및 건축이론의 선구적 예로 평가받고 있다⁹⁸).

95) 정보상(2017). 유럽여행 베스트 123, 서울: 상상출판, pp.72-74.

96) 표민웅(2024). 건축가 안톤 가우디 세계, 수필시대학회지, 22(봄), pp.177-192.

97) 이혁진 & 임근욱(2011). 전계서.

98) 이우중 & 김남정(2005).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학회지, 40(6), pp.177-192.



<그림 7> 구엘 공원 입구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spain-march-12-park-guell-138278063>
(검색 일자: 2024.12.11.)



<그림 8> 드래곤 계단
출처: <https://www.barcellona.shop/en/tour/park-guell-tour.html>
(검색 일자: 2024.12.11.)



<그림 9> 시장 홀
출처: <https://parkguell.barcelona/en/node/311>
(검색 일자: 2025.01.08.)



<그림 10> 세라믹 벤치
출처: <https://pxhere.com/ko/photo/659095>
(검색 일자: 2024.12.13.)



<그림 11> 자연과 하나 된 구엘 공원
출처: <https://www.barcelona-tickets.com/park-guell/>
(검색 일자: 2024.12.13.)



<그림 12> 구엘 공원의 모자이크 타일
출처: <https://blog.naver.com/tghouse/220159531854>
(검색 일자: 2024.12.18.)

3) 카사 바트요

카사 바트요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로, 가우디가 1904년에 개조한 건축물이다⁹⁹⁾. 원래 건물 자체는 1877년에 지어졌고, 당시의 모습도 단순한 형태와 구조만 가지고 있었다. 바트요 가족이 이 건물을 매입한 후 가우디에게 혁신적인 리모델링을 의뢰하면서¹⁰⁰⁾, 이 건물은 <그림 13>과 같이 지금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이 건축물은 다양한 자연적 상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우디가 추구한 자연주의 건축의 대표적 예시로 평가된다¹⁰¹⁾. 가우디의 독창적 예술성과 건축 철학이 잘 반영된 작품이기 때문에, 카사 바트요는 자연에 대한 그의 이해와 상상력이 결합된 걸작이라 평가받는다¹⁰²⁾.

(1)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카사 바트요의 외관은 <그림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는 파사드로 유명하다. 외관의 푸른색 타일과 유리 조각은 바다를 연상시키며, 창문과 발코니는 물고기의 아가미나 조개껍데기처럼 보인다¹⁰³⁾. 가우디는 파사드의 디자인을 통해 자연의 곡선과 물결을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석조와 철제 소재를 활용하여 파도의 흐름과 같은 형태를 구현하였다¹⁰⁴⁾.

99) Lu, Y.(2023). A comparative study of two architectural reconstruction design of Casa Batlló, In SHS Web of Conferences, Vol. 167, p. 01009, EDP Sciences, p.1.

10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019). The Restauration of Casa Batllo, from inside to beyond its walls - Works of Antoni Gaudí, Spain, Project dossier No. 173356, p.1.

101) Abildgaard, Malene.(2018). 만들고 그리고 배우자, 경기도: 부코, pp.124-125.

102) 이리에 마사유키(2017). 전계서, pp.72-75.

103) 카사 바트요, (<https://www.casabatllo.es/ko/>, 검색 일자: 2024.12.18.).

104) 피수철(2015).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커트 디자인 개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0.

<그림 15>와 같이 건물의 외벽은 가우디가 즐겨 사용한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장식되었다¹⁰⁵). 작은 유리조각과 타일을 조합한 이 기법은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는 햇빛에 따라 건물이 다양한 색으로 빛나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창문과 발코니 역시 곡선과 불규칙한 형태로 설계되어, 파도의 물결을 형상화하여 생동감을 더하고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¹⁰⁶).

<그림 16>에는 카사 바트요 지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가우디가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부분으로, 전설 속 용의 등뼈를 연상시키는 곡선형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스페인 전설에서 악마를 무찌른 성 조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용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며¹⁰⁷), 이를 통해 카사 바트요는 단순한 건축물에서 예술적 상징을 담은 상징적 건축물로 승화되었다.

(2) 내부 구조와 혁신적 설계

카사 바트요는 빛과 환기를 고려해 설계한 건축물이다. 가우디는 건물의 중심부에 <그림 17>과 같이 큰 안뜰을 배치하여 모든 층이 자연광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안뜰의 타일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점점 짙어진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하단부는 더 밝게, 상단부를 더 어둡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긴다. 가우디는 이러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각 층에 고르게 빛이 퍼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¹⁰⁸).

<그림 18>은 카사 바트요의 창문으로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곡선적인 모양으로 설계되었다¹⁰⁹). 가우디는 창문을 통한 빛의

105) 카사 밀라, (<https://www.lapedrera.com/ko/architect-antoni-gaudi/work>, 검색 일자: 2024.12.18).

106) 이재환(2018). 베스트 오브 스페인 101, 서울: 테라, pp.62-65.

107) 최성현(2003). 안토니 가우디 코르네(Antoni Gaudi Cornet)의 작품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108) 디스커버 이미지, (<https://www.discoverimages.com/central-light-inside-casa-batllo>, 검색 일자: 2024.12.20).

109) 김지선(2007). 예술가의 집, 서울: 예경, pp.94-97.

흐름을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창문을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창문 배치는 내부 공간이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만든다.

건물의 내부 기둥과 <그림 19>와 같은 창문 프레임 역시 뼈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는 동굴 속의 석회암처럼 보이기도 하며, 가우디의 다른 건축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기적 요소로도 볼 수 있다. 특히 1층과 2층의 창문 주변에 위치한 뼈 모양의 프레임은 “해골의 집”이라는 별칭을 얻게 하였다¹¹⁰⁾.

가우디는 카사 바트요의 내부 가구와 계단, 난간까지 직접 디자인하였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강조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하였다. 계단의 난간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사람의 척추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과 유기적 아름다움을 더한다¹¹¹⁾.

(3) 카사 바트요의 기능과 가치

카사 바트요는 예술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설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¹¹²⁾. 가우디는 방마다 독립적으로 환기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에 <그림 20>과 같은 발코니를 설계하였다. 공기의 흐름이 유기적일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설계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실용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가우디는 건물의 구조도 <그림 21>과 같이 하나된 공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계단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각 층이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가우디의 유기적 건축 철학을 반영하였다¹¹³⁾.

110) 유혜영(2010). 스페인 디자인 여행, 경기도: 안그래픽스, pp.222-225.

111) 조정희(2017). (직장인을 위한) 7일의 스페인, 서울: 아홉 번째서재, pp.48-51.

112) 김대년(2004). 카사 바트요 조형특성과 건축사고, 한국주거학회지, 15(5), pp.21-32.

113) 김유민(2017). 서른살 여행기, 경기도: 부크크, pp.132-134.

2005년 카사 바트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오늘날 까지도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이다¹¹⁴⁾. 가우디의 자연주의와 상징적 표현은 현대 건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혁신적 접근법은 전 세계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¹¹⁵⁾. 카사 바트요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 했던 가우디의 철학이 집약된 걸작이라 할 수 있다¹¹⁶⁾.

11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024). Periodic Reporting Cycle 3, Section II: Works of Antoni Gaudí, Property 320 bis.

115) 최은영(2006). 전개서, pp.17-43.

116) 김미리(2010).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pp.30-50.



<그림 13> 카사 바트요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asa_Batl%C3%B3
(검색 일자: 2024.12.21.)



<그림 14> 카사 바트요의 파사드
출처: <https://www.casabatllo.es/antoni-gaudi/casa-batllo/facade/>
(검색 일자: 2024.12.21.)



<그림 15> 카사 바트요의 트렌카디스 기법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batllo/facade/>
(검색 일자: 2025.02.16.)



<그림 16> 카사 바트요의 지붕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batllo/inside/>
(검색 일자: 2024.12.27.)



<그림 17> 카사 바트요의 중앙 안뜰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asa_Batl%C3%B3
(검색 일자: 2024.12.27.)



<그림 18> 카사 바트요의 창문
출처: <https://www.barcelona-tourist-guide.com/ko/antoni-gaudi/casa-batllo.html>
(검색 일자: 2024.12.30.)



<그림 19> 카사 바트요의 프레임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online-tickets/>
(검색 일자: 2024.12.30.)



<그림 20> 카사 바트요의 발코니
출처: <https://blog.naver.com/tiratrael/221374827091>
(검색 일자: 2025.02.26.)



<그림 21> 카사 바트요의 현관 입구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batllo/inside/>
(검색 일자: 2025.01.05.)

4) 카사 밀라

카사 밀라는 바르셀로나의 중심가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로, 1906년에서 1912년까지 가우디가 건축한 작품이다¹¹⁷⁾. 카사 밀라는 흔히 ‘라 페드레라 (La Pedrera, 채석장)’ 라고 불리는데, 이는 건물 외관이 마치 거대한 암석이나 채석장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 때문이다. 가우디는 이 건물 자체를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듯하게 설계하였다. 카사 밀라 역시 전통적 건축방식을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건축물임을 보여주었다¹¹⁸⁾.

(1) 외관 디자인과 파사드의 상징성

카사 밀라의 외관은 바르셀로나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모습을 자아낸다. 건물 외벽은 파도치는 듯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유기적인 형태로 설계한 가우디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¹¹⁹⁾. 건물의 파사드 또한 <그림 22>에서 보이듯이 마치 거대한 암석처럼 보이기 때문에 카사 밀라는 자연적 조화와 유기적 건축의 예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¹²⁰⁾.

<그림 23>에 보이는 각 층 발코니의 독특한 철제 난간도 추상적이고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얽혀있어 마치 자연 속 덩굴 식물이나 해초를 연상시킨다. 가우디는 이 난간을 제작하기 위해 철제 조각가 호세 마리아 후홀 (Josep Maria Jujol)과 협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적인 형태를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¹²¹⁾.

117) 박무귀(2018). 전계서.

118) 안서영(2013). 아르누보를 표현한 아트 웨딩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5.

119) 이준호(2009). Antoni Gaudi i Cornet 건축작품 입구공간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122.

120) 윤희철(2015). 유럽을 스케치하다, 경기도: 린, pp.60-61.

(2) 내부 구조

<그림 24>를 보면 카사 밀라가 당시엔 매우 혁신적이었던 구조 설계임을 알 수 있다. 가우디는 카사 밀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기둥을 사용하고, 벽은 독립적으로 설계하였다¹²²⁾. 이러한 설계 덕분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내부 공간을 구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에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다. 건물의 중심부에도 큰 안뜰을 배치하여, 모든 거주 공간이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¹²³⁾. 안뜰의 형태는 <그림 25>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각 층에서 빛이 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¹²⁴⁾. 이를 통해 가우디는 거주자들이 자연과 가까운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광과 환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였다. 카사 밀라의 내부 계단과 통로도 직선보다는 곡선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림 26>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건물 내부에서조차도 자연스러운 흐름과 유기적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가우디의 건축적 철학을 실내 공간에서도 이어가게 한다¹²⁵⁾.

(3) 지붕 디자인과 굴뚝 조각

카사 밀라의 지붕은 가우디의 상상력과 예술적 자유가 가장 극대화된 공간 중 하나로 평가된다¹²⁶⁾. 건물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 중 하나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려해 설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림 27>을 보면 지붕

121) 스즈키 히로유키(2009). 전계서.

122) 타임리스 아키텍처 (<https://archeyes.com/casa-mila-by-antoni-gaudi-a-modernist-masterpiece-in-barcelona>, 검색 일자 2025.01.08).

123) 카사 밀라, (<https://www.lapedrera.com/en/blog/gaudi-made-holes-casa-mila>, 검색 일자: 2025.01.10.).

124) 장한수(2009). 친환경 초고층 주거 건축물 설계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7-89.

125) Borrás, Maria Lluïsa.(1985). 가우디의 2개의 아파트, 서울: 집문사, pp.6-33.

126) 신양란(2014). 가고 싶다 바르셀로나, 서울: 지혜정원, pp.174-175.

에 독특한 형태의 굴뚝이 여러개 배치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굴뚝은 개성 있는 형태와 질감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의 요소나 전설 속 인물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굴뚝의 형태와 구조는 단순히 환기구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예술적 가치를 더 해주고 있으며, 지붕 자체를 하나의 조각 공원처럼 보이게 한다¹²⁷⁾.

가우디는 지붕의 곡선과 굴뚝의 형태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햇빛과 공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했던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¹²⁸⁾.

(4) 카사 밀라의 혁신성과 가치

카사 밀라는 건축적 실험과 기술 혁신이 조화된 대표적 사례이다¹²⁹⁾. <그림 28>에 나타난 당시 커튼월 모형을 보면 카사 밀라가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프레임을 사용한 초창기 구조건축물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설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거주자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림 29>의 당시 건축 모형을 보면 가우디가 얼마나 자연 채광과 환기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다. 창문과 발코니의 위치, 지붕 구조 등을 설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1984년 카사 밀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¹³⁰⁾, 현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³¹⁾. 이 건물은 기능성과 예술성을

127) 김관중(2017). 가우디 건축 프린트 패션디자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지, 31, pp.7-19.

128) 손명환(2020).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자연주의 특징을 응용한 장신구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129) 타임리스 아키텍처 (<https://archeyes.com/casa-mila-by-antoni-gaudi-a-modernist-masterpiece-in-barcelona/>, 검색 일자 2025.01.10).

130) 카사 밀라, (<https://www.lapedrera.com/en/la-pedrera/heritage-and-accolades>, 검색 일자 2025.01.10).

융합하여, 당시의 건축적 한계를 뛰어넘고 미래 지향적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¹³²⁾. 가우디의 자연주의적 접근과 혁신적인 디자인은 오늘날까지도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 건축의 조화, 곡선의 활용, 공간 구성의 자유로움 등은 현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¹³³⁾. 건물 자체의 독창성과 혁신성으로 인해 현대 건축에서 중요한 가치를 알리는 작품이자, 가우디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건물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건축에서 예술적 상상력과 기술적 혁신이 조화롭게 연결된 작품으로 여겨진다¹³⁴⁾.

131) 유재영 & 이연희(2011). 안토니 가우디 작품의 트랜카디스 이미지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복식문화연구학회지, 19(4), pp.751-765.

132) 최우용(2011). 유럽방랑 건축 + 畵, 경기도: 서해문집, pp.202-203.

133) 김희곤(2014). 스페인은 건축이다, 경기도: 오브제, pp.288-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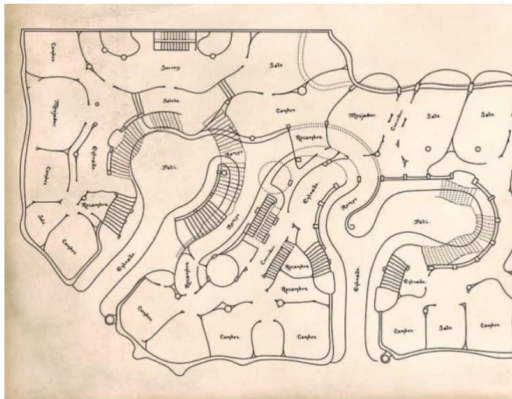
134) 타임리스 아키텍처 (<https://archeyes.com/casa-mila-by-antoni-gaudi-a-modernist-masterpiece-in-barcelona/>, 검색 일자 2025.01.15).



<그림 22> 카사 밀라 외관
출처: <https://jerrystory.tistory.com/321>
(검색 일자: 2025.01.18.)



<그림 23> 카사 밀라 발코니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mila-la-pedrera/>
(검색 일자: 2025.01.18.)



<그림 24> 카사 밀라의 내부 평면도
출처: Architectural Dossier.(2019). Fundació Catalunya La Pedrera-Casa Mil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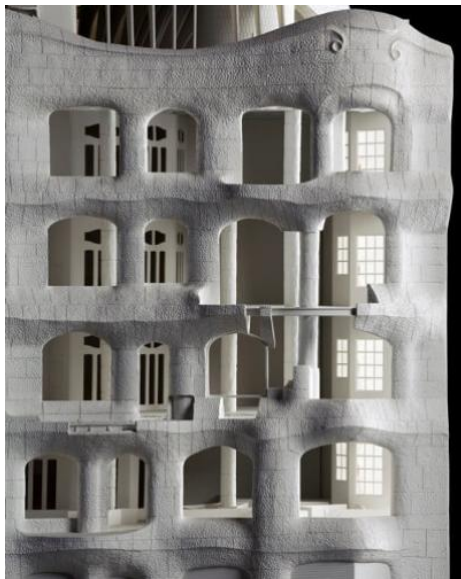
<그림 25> 카사 밀라의 안뜰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mila-la-pedrera/>
(검색 일자: 2025.01.18.)



<그림 26> 카사 밀라의 내부
 출처: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mila-la-pedrer/>
 (검색 일자: 2025.01.21.)



<그림 27> 카사 밀라의 옥상
 출처: <https://dolami.tistory.com/36>
 (검색 일자: 2025.01.21.)



<그림 28> 카사 밀라의 커튼월 모형
 출처: <https://www.lapedrera.com/ko/la-pedrera/architecture>
 (검색 일자: 2025.01.25.)



<그림 29> 카사 밀라 모형
 출처: <https://www.lapedrera.com/ko/la-pedrera/architecture>
 (검색 일자: 2025.01.25.)

3. 정신질환과 예술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¹³⁵⁾, 기술 발전에 따른 소외감¹³⁶⁾, 불안정한 경제 상황¹³⁷⁾, 그리고 개인화된 생활 패턴¹³⁸⁾은 불안,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8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질환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³⁹⁾. 전 세계 인구의 약 1억명 이상이 정신 질환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과 불안 장애는 정신건강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⁴⁰⁾. 이러한 정신 질환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직업적 성취,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 질환의 특징은 그 원인이 매우 복잡적이고 증상도 사람마다 다양해 객관적인 기준을 특정하기 어렵다¹⁴¹⁾.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극심한 슬픔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¹⁴²⁾. 불안 장애의 경우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불안, 공황 발작, 강박장애(OCD) 등 여러 징후로 나타난다¹⁴³⁾. 이렇게 정신 질환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점 크게 자리 잡

135) Posselt, J. R., & Lipson, S. K.(2016). Competition,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college classroom: Variations by student identity and field of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8), pp.973-989.

136) Smith, A P., & Alheneidi, H.(2023). The internet and loneliness, *AMA Journal of Ethics*, 25(11), pp.833-838.

137) Yang, Y., Niu, L., Amin, S., & Yasin, I.(2024).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global study of unemployment's influence on diverse mental disorder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1440403.

138) 질병통제예방센터, (<https://www.cdc.gov/social-connectedness/risk-factors/index.html>, 검색 일자: 2025.01.27).

139) 세계보건기구,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disorders>, 검색 일자: 2025.01.29).

140) 메디칼업저버, (<https://www.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42>, 검색 일자: 2025.01.29).

141) Fried, E. I., & Robinaugh, D. J.(2020). Systems all the way down: embracing complexity in mental health research, *BMC medicine*, 18, pp.1-4

142) 헬스라인, (<https://www.healthline.com/health/depression/hidden-depression>, 검색 일자: 2025.02.01).

143) 정신의학회, (<https://www.psychiatry.org/patients-families/anxiety-disorders/what-are-anxiety-disorders>, 검색 일자: 2025.02.03).

고 있고, 예술 분야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은 정신 질환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치유와 이해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역할을 해왔다¹⁴⁴). 예술이 가지는 역할은 미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치유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정신 질환을 소재로 한 예술

현대 미술과 심리학의 융합은 정신 질환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가들은 정신 질환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며, 이는 관객과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¹⁴⁵). 정신 질환을 겪으며 이를 작품에 투영한 예술가들의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우울증과 조울증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작품에 진하게 투영되었다. 특히 색상과 붓 터치 of 독특한 사용으로 유명하다. 이는 그의 내면적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며, 그의 작품은 이후 정신 질환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¹⁴⁶). 그의 작품은 예술을 통한 감정적 해방과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¹⁴⁷).

144) Stuckey, H. L., & Nobel, J.(2010). The connection between art, healing, and public health: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2), pp.254-263.

145) 선민아(2009).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78.

146) Hallac, U.(2023). The effect of Vincent Van Gogh's psychopathology on his works. *Journal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6(2), pp.507-519.

147) 강수경(2017).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78.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은 반 고흐가 생 레미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던 시기에 완성한 작품으로¹⁴⁸⁾, 그의 정신 상태가 강하게 반영된 걸작이다. 하늘을 휘감는 소용돌이, 거친 붓 터치, 그리고 강렬한 색상 대비는 그가 느낀 혼란과 불안을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그는 편지를 통해 “밤의 별을 보며 죽음을 생각한다”고 표현한 바 있는데¹⁴⁹⁾, 이는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우울한 정서의 근거로 사용되곤 하였다. 이 작품은 그의 정신적 고통을 자연과 우주의 신비로움 속에 투영한 작품으로, 혼돈과 평온의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¹⁵⁰⁾.

또 다른 그의 대표작 아를의 침실(Bedroom in Arles)은 반 고흐가 프랑스 아를에 머물면서 그린 자화상 같은 그림이다. 이 침실은 단순한 공간 묘사라기보다는 그의 정서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¹⁵¹⁾.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구와 색채는 불안하고 고립된 느낌을 자아내며, 그가 아를에서 느낀 고독과 내면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흐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²⁾.

(2) 에드바르트 뭉크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는 공황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작품에 크게 반영되었다. 뭉크는 자신의 예술을 “내 영혼의 일기”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을 중시하였다¹⁵³⁾. 그의 작품은 개인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시각화하여 공감을 유발

148)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tarry-Night>, 검색 일자: 2025.02.05.).

149) 반고흐 뮤지엄, (<https://vangoghletters.org/>, 검색 일자: 2025.02.05.).

150) 박지니(2020). [교양이의 미술 토크]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_ 고달픈 마음에 드리운 별빛, 유레카학회지, 445, pp.78-81.

151) Avdeeva, Y. N., Degtyarenko, K. A., Kolesnik, M. A., Koptseva, N. P., Pchelkina, D. S., & Shpak, A. A.(2020). Architectural space in the paintings by Vincent van Gogh. Journal of Siberian Federal University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3(6), pp.838-859.

152) 최연욱(2016). 반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32가지, 서울: 소울메이트, pp.158-161.

하며, 이러한 과정이 예술가에게는 감정의 해소를, 관객에게는 심리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제공하였다¹⁵⁴⁾.

그의 대표작인 절규(The Scream)는 몽크의 정신적 불안과 내면의 공포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는 작품의 영감을 오슬로의 피오르 해안을 산책하던 중 하늘이 붉게 물들고 땅이 흔들리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받았다고 밝혔다¹⁵⁵⁾. 작품 속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인물의 표정은 절망과 불안, 공포를 상징하고 뒤틀린 하늘과 구불거리는 배경은 몽크가 경험한 내면의 혼란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그 자체로 현대인의 불안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작품으로 해석되며, 고독하고 불안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⁵⁶⁾.

또 다른 그의 작품인 병든 아이(The Sick Child)는 몽크가 어린 시절 결핵으로 여동생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가족을 잃은 경험으로 인해 극심한 슬픔과 트라우마는 그의 예술적 주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¹⁵⁷⁾. 이 작품은 가족의 애도 과정에서 느끼는 내면의 아픔을 표현하며, 그의 개인적 상처와 정신적 불안을 투영한 작품으로 해석된다¹⁵⁸⁾.

(3) 요코 오노

현대 미술가 요코 오노(Yoko Ono)는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신적 고통과 회복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인의 감정을 성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 치유의 가능성을 제

153) Tojner, P. E.(2003). Munch: In His Own Words, Preste, p.135.

154) 김정민(2002). 몽크(Edvard Munch)의 회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45.

155)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cream-by-Munch>, 검색 일자: 2025.02.10).

156) 김광우(2003). 몽크, 쉴레, 클립트의 표현주의, 서울: 미술문화, pp.194-196.

157) Avdeeva, Y. N., Degtyarenko, K. A., Kolesnik, M. A., Koptseva, N. P., Pchelkina, D. S., & Shpak, A. A.(2020). 전게서.

158) 여지선(2014). 에르바르트 몽크를 통한 이승하의 세 가지 시선. 우리말글학회지, 61, pp.243-271.

시하고 있다¹⁵⁹⁾.

그녀의 대표작인 Cut Piece는 요코 오노가 1964년에 처음 선보인 퍼포먼스 아트로 관객이 무대에 올라 그녀의 옷을 가위로 잘라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¹⁶⁰⁾.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대상화되고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관객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성찰을 유도하는 이 작품은 관객이 예술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내면을 마주하게 하여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된다¹⁶¹⁾.

Wish Tree는 관객이 나뭇가지에 소원을 적어 걸도록 하는 설치 작품으로 요코 오노가 치유와 희망을 표현하고자 기획한 작품이다¹⁶²⁾. 작품을 통해 관객은 스스로의 바람과 희망을 되새기며, 감정적 해소와 심리적 치유의 경험을 얻게 된다. 이 작품은 작가의 트라우마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집단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적 치유의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⁶³⁾.

159) 민슬리 아트, (<https://monthlyart.com/portfolio-item/yoko-onomusic-mind/>, 검색 일자: 2025.02.10).

160) Goldberg, R.(2020). Performance Art: From Futurism to the Present, 4th ed, Thames & Hudson, p.150.

161) 이지은(2003). 오노 요코 <컷 피스>, 서양미술사학회지, 19, pp.59-77.

162) 포틀랜드 재패니즈 가든, (<https://japanesegarden.org/2024/07/16/wish-tree-yoko-ono/>, 검색 일자: 2025.02.12).

163) 이메진피스타워, (<https://www.imaginepeacetower.com/yoko-onos-wish-trees/>, 검색 일자: 2025.02.12).

<표 1> 예술 작품으로 보는 정신 질환

작가	빈센트 반 고흐		에드바르트 뭉크		요코 오노	
작품						
	출처: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tarry-Night (검색 일자: 2025.02.15.)	출처: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van-gogh-s-bedroom-in-arle (검색 일자: 2025.02.15.)	출처: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cream-by-Munch (검색 일자: 2025.02.17.)	출처: https://www.munchmuseet.no/en/our-collection/the-sick-child/ (검색 일자: 2025.02.17.)	출처: https://florica.wordpress.com/2007/09/11/yoko-ono-cut-piece/ (검색 일자: 2025.02.20.)	출처: https://abeautifulresistance.org/site/2024/3/12/yoko-ono-music-of-the-mind?utm_source (검색 일자: 2025.02.20.)
제목	별이 빛나는 밤	아를의 침실	절규	병든 아이	컷 피스	위시 트리
미술사조	19세기 후반은 인상주의에서 출발해 감정과 개성을 강조한 후기 인상주의로 발전하였으며, 주관적인 색채와 형태를 통해 예술가의 내면을 표현		20세기 초반은 상징주의와 표현주의가 중심이 되어, 불안·죽음·고독 같은 인간의 심리를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표현		1960년대는 개념미술과 플럭서스, 행위예술이 주류가 되어 예술의 물질적 결과보다 아이디어와 참여, 일상과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활발	
정신 질환적 특징	서정적인 분위기와 우울한 정서가 바탕이 되는 작품으로 작가의 정신적 고통이 투영됨. 작가 내면의 슬픔이 자연과 우주의 신비로 나타나며 혼돈과 평온의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음.	작가가 프랑스 아를에 머물면서 그린 작품으로 본인이 느낀 고독과 내면적 갈등을 묘사함. 안정되지 못한 삶과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반영함.	작가의 정신적 불안과 내면의 공포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작품. 현대인의 불안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작품.	가족의 애도 과정에서 느끼는 작가 본인의 경험이 담긴 자전적 작품. 극심한 슬픔과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불안과 상처를 표현함.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작가 스스로가 작품 대상이 됨.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치유의 기회를 제공함.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감정적 해소와 심리적 치유를 경험하는 작품. 작가의 트라우마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공동체적 치유의 경험도 함께 제공함.

2)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과 정신 질환 표현의 연결성

가우디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미와 정교한 기하학적 구성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신 상태를 시각화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¹⁶⁴. 일정하지 않은 흐름과 예상 밖의 형태는 불안정한 내면의 감정 상태나 혼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통해 불안 장애, 강박적 사고, 인지의 혼돈 등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은유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¹⁶⁵.

또한 가우디가 즐겨 사용한 다채로운 색채는 감정의 심층적 변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연에서 가져온 색조 변주를 활용한다면 기분의 급격한 변동을 겪는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서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명암 대비를 극대화한 색 배치 역시 감정의 급작스러운 전환을 강조할 수 있고 불안정한 심리에서 오는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¹⁶⁶.

정신 질환의 다양한 증상들은 복잡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형태나 색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⁶⁷. 가우디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패턴과 색채의 조화는 이러한 정신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 영감을 줄 수 있다. 그의 건축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자이크 타일 기법과 유기적인 곡선은 강박적 반복이나 비현실적 사고를 상징하는 데 유용하며, 색상과 형태의 반복적인 배열은 정신 질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¹⁶⁸.

우울 증상 가운데 대표적인 무기력과 침전된 기운을 시각화하려면 가우디

164) Browne, C.(2008). Gaudi's organic geometry, *Computers & graphics*, 32(1), pp.105-115.

165) Blazhenkova, O, & Kumar, M M(2018). Angular versus curved shapes: Correspondences and emotional processing, *Perception*, 47(1), pp.67-89.

166) Elliot, A. J.(2015). Color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Frontiers in psychology*, 6, 127888.

167) 장수영(2019). 칼라테라피 원리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연구: 사용자 연구를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30.

168) Curry, N. A, & Kasser, T.(2005). Can coloring mandalas reduce anxiety?, *Art Therapy*, 22(2), pp.81-85.

작품의 어두운 톤과 부드러운 곡선미를 활용할 수 있다. 짙은 색채는 활력을 잃은 내면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들은 고요하지만 무거운 감정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반대로, 불안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상태는 가우디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생동감 있는 색상을 통해 시각화될 수 있다. 불안감은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패턴으로 표현되어 그 불안정함을 강조할 수 있으며, 정신분열증의 경우 다채로운 색과 날카로운 선을 결합하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은유할 수 있다. 이처럼 가우디의 건축적 특징을 통해 정신 질환을 다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¹⁶⁹⁾.

본 연구에서는 그의 작품 가운데 4가지 작품인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 구엘 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중심 배경으로 선택하였다. 우선 카사 밀라와 카사 바트요를 통해 불안 장애의 정서와 증상을 시각화하였다. 파도처럼 요동치는 카사 밀라의 곡면과, 해골과 비늘이 뒤얽힌 카사 바트요의 파사드는 끊임없이 솟았다 가라앉는 선과 파편화된 모자이크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는 이 불규칙 곡률을 얼굴 윤곽에 배치해 불안 장애의 정서를 시각화할 수 있었다. 또한 대조적인 색 배치를 통해 내면과 보이는 모습에 대한 정서의 대치를 보여주었다.

구엘 공원 곳곳에 보이는 곡선형 벤치와 구조, 트렌카디스 타일은 조울증의 극단적인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공원 내 채도와 색채가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해 조증과 우울증이 갖고 있는 감정의 진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메이크업의 패턴 배치를 화려한 색상으로 불규칙하게 늘어놓으며 조울증 환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정서 상태를 반영하였다.

169) 김양희(2011). 전계서, pp.30-46.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경우 성당 내부 기둥과 파사드 외면의 반복적인 조형을 요소로 강박 장애 환자들의 반복된 패턴과 통제 욕구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였다. 끝없이 반복되는 행동, 집착하는 행동들을 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메이크업에서는 점·선 패턴을 얼굴에 배열해 은유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첩탑과 건물의 보강재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요소로 삼아 조현병의 정신 착란 현상과 환자들의 사고 분열을 표현하였다. 얼굴 중심선을 따라 색채의 그라데이션을 연출해 왜곡된 사고, 사고의 분열 같은 조현병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4가지 건축물을 소재로 불규칙한 곡선은 불안으로, 색채와 형태의 대비는 양극성으로, 패턴은 강박으로, 수직 구조와 수평구조의 교차는 정신 혼란으로 표현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8가지 작품 각각이 특정 정신 질환의 증상과 심리상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였다.

4. 아트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은 회화와 조형을 매체로 삼아 인간의 내면을 시각화하는 융합 예술이다. 회화, 퍼포먼스의 경계를 넘나들며 색채·질감·형태를 입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관람자에게 단순 감상이 아닌 몰입적 체험을 유도한다. 정신 질환을 주제로 할 경우 자유로운 색 대비와 비정형적 구조를 통해 불안, 환각 등 복합적 정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적 모티브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해 이러한 표현 가능성을 심화시키고, 작품의 서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트메이크업의 개념을 살피고, 이어 정신 질환 표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아트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단순히 미용적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의 한 영역으로 확장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인간의 얼굴과 신체를 회화적, 조형적 캔버스로 삼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각예술을 구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¹⁷⁰⁾. 전통적인 미용 메이크업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기반한 조형 작업이었다면, 아트메이크업은 작가의 정체성, 감정, 사상, 사회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예술적 행위로 기능한다¹⁷¹⁾. 메이크업이 미의 기준을 따르는 작업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시도라는 점에서, 아트메이크업은 회화, 조각, 패션, 설치 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융합된 복합적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¹⁷²⁾.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며, 표현에 있어 자유롭고 실험적인 태도를 지닌다¹⁷³⁾. 작가는 얼굴과 몸에 색채, 질감, 구조, 조형적 오브제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각예술을 창조하고, 이 과정에서 회화적 기법뿐 아니라 조각적 구조물, 건축적 요소, 자연물 등 다양한 형식을 차용한다¹⁷⁴⁾. 또한 아트메이크업은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실현되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되어 시간성과 일회성이라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트메이크업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는 현대예술의 한 양식으로 평가된다¹⁷⁵⁾.

특히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시각적으로 재해석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회화작품은 아트메이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170) 박주영(2013). 전개서. pp.25-27.

171) 오성림(2012).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172) 김민정 & 임지영(2012).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p.57-71.

173) 김세희 & 이정민(2007). 포토샵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3(3), pp.1-10.

174) 박리라(2016). 데페이즈망 아트메이크업, 한국융합학회지, 7(3), pp.35-44.

175) 이지은(2015). 쿠사마 야요이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통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35.

예술적 참조물로, 작가의 감정과 철학이 응축된 이미지들은 얼굴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¹⁷⁶⁾.

아트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얼굴 위에 올리는 입체 오브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실리콘, 금속, 종이 등 여러 소재가 활용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 재료들로 얼굴과 조화시켜 형상, 재질, 질감이 공존하는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완성된 작업은 무대에서 퍼포먼스 형태로 선보이거나, 촬영 혹은 전시를 거쳐 독립된 예술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한다¹⁷⁷⁾.

건축적 요소를 아트메이크업에 차용하는 시도도 두드러진다¹⁷⁸⁾. 특히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은 아트메이크업에 있어 매우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가우디의 건축은 유기적인 곡선, 자연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 다채로운 색채와 모자이크 기법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얼굴의 구조와 움직임에 적절하게 융합될 수 있는 조형적 언어를 제공한다. 가우디의 건축에서 보이는 곡선미는 얼굴의 윤곽에 부드럽게 이어지며, 모자이크 기법은 화려한 색채 분할과 입체감을 더해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인다¹⁷⁹⁾. 이러한 시도는 건축예술과 인체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아트메이크업은 여러 예술 분야와 교차하며 창의적 실험의 무대를 넓혀왔다. 얼굴을 캔버스 삼아 감정과 사상, 사회적 이슈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현대예술 안에서 독자적 가치를 확립하고 있다.

176) 이지은(2015). 전계서, pp.30-45.

177) 방수진(2010).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1), pp.225-236.

178) Venugopal, R. K.(2020). From concept to character: The influence of architectural principles on costume and makeup design in theatr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e Research Thoughts, 8(2), pp.2192-2199.

179) 박주영(2013). 전계서, pp.30-79.

2) 아트메이크업을 통한 정신 질환적 표현

현대예술에서 정신 질환은 단지 병리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세계를 조망하고 사회적 구조를 반성하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있다¹⁸⁰⁾. 아트메이크업은 이러한 정신 질환의 주제를 외적으로 시각화하는 예술적 도구로서 개인의 정서와 무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¹⁸¹⁾. 동시에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도 한다¹⁸²⁾.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정신 질환의 표현은 주로 내면의 감정 상태, 인지적 분열, 현실과 환상의 경계, 정체성의 흔들림 등을 시각적 형태로 풀어낸다. 현대인의 정신 질환은 감정의 혼란과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외부에 전달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¹⁸³⁾. 얼굴과 신체라는 캔버스를 통해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적용해 정신 질환의 본질을 표현하는 아트메이크업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이자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신 질환의 복잡성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⁸⁴⁾.

아트메이크업은 얼굴과 몸이라는 매체에 직접 구현되기 때문에 그 표현은 물리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¹⁸⁵⁾. 얼굴은 자아의 정체성과 사회적 이미

180) 이영식(2021). 반 고흐 정신세계 고찰, 신경정신의학학회지, 60(2), pp.97-119.

181) Triolo-Rodriguez, R.(2023). Exploring core concepts and uses of makeup in expressive arts therap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Master's thesis, Lesley University, Lesley University Digital Commons.

182) Beato, A, da Costa, L. P., Carvalho, A., Albuquerque, S., & Santos, I.(2024). WeARTolerance: Evaluating the impact of an arts-based program to reduce mental-health-related stigma in young people, PLOS ONE, 19(12), e0314994.

183) 윤희(2021). 아트메이크업 사이키델릭 미적 특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2021.5, pp.113-115.

184) Burrows, K.(2023). Expressive Arts in Ecotherapeutic Contexts: a social intervention for Autism (Doctoral dissertation, Anglia Ruskin Research Online (ARRO)).

185) Jerentrup, Maja Tabea.(2020). The Body as Canvas as Picture: Bodypaint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and Art Studies, 4(2), pp.44-60.

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 위에 구현되는 정신적 표현은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긴장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¹⁸⁶⁾. 형태의 왜곡, 색채의 불균형, 반복과 대칭의 파괴, 텍스처의 불안정성 등은 모두 정신 내면의 불안정한 상태를 암시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보는 이들은 작가가 경험하거나 상상한 내면세계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¹⁸⁷⁾.

이러한 작업은 단순 미학이 아니라 정신 질환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넓은 시야로 바꾸는 데에 있다. 당사자는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 복잡한 감정을 외부 세계로 끌어내어 본인을 재인식할 기회를 얻고, 관람자는 그 이미지를 매개로 소통하면서 고정관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¹⁸⁸⁾.

정신 질환을 주제로 한 아트메이크업을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반영한 자전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한 선행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¹⁸⁹⁾. 예술은 고통의 기록이자 해석이며, 동시에 치유의 가능성을 품은 행위가 된다. 메이크업이 더 이상 외적 아름다움의 도구가 아닌,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이를 예술로 전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¹⁹⁰⁾.

결국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정신 질환의 표현은 현대사회의 정신적 복잡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정서와 심리, 사회적 이슈를 연결하는 예술적 행위로서, 표현 주체와 관람자 모두에게 정서적 공감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¹⁹¹⁾. 나아가 이러한 표현은 예술의 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치유와 인식 전환이라는 기능까지 포괄하는 또 다른 예술의 한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186) Mui, S. A.(2007). Beyond the face: Art therapy and self-portraiture, *The Arts in Psychotherapy*, 34(4), pp.331-339.

187) Blazhenkova, O., & Kumar, M. M.(2018). 전게서, pp.67-89.

188) Estrada Gonzalez, V, Mbetaki, V, Walker, M, Payaro Sosa, J, Stamper, A, Sikanchana, R, ... & Chatterjee, A(2024). Art therapy masks reflect emotional changes in military personnel with PTSD, *Scientific Reports*, 14(1), 7192.

189) Burrows, K.(2024). Mad Academics: Mental Health Autoethnography.

190) Triolo-Rodriguez, R.(2023). 전게서.

191) 김영천(2013).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 재활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Ⅲ. 작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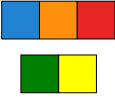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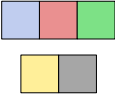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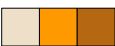



1. 제작 의도 및 방법

이번 아트메이크업 작품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적 특성을 이용해 정신적 질환의 다층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가우디의 건축적 특징들 중 유기적 형태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 풍부한 색채감, 그리고 트렌카디스 모자이크 기법 등을 활용해 독창적인 예술미를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불안, 조울증, 강박장애, 조현병 등 각각의 질환이 가지는 증상들과 심리적 특성을 가우디 건축물의 형태 미학과 만나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번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유기적 형태와 자연 모티브를 활용해 불안 장애의 증상과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해 보았다. 둘째, 과격적인 색상과 모자이크 패턴으로는 조울증의 심리상태를 담아보았다. 셋째, 기하학적 형태와 혁신적인 구조설계 방법을 통해 강박장애의 정형화된 증상들과 강박장애를 느끼는 환자들의 고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넷째, 종교적 상징성과 상상력을 동원해 조현병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증상과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제작을 통해 미적 표현을 넘어 감정과 심리를 시각화하여 보는 이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총 8점의 작품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작했고 특정 정신적 질환과 가우디의 미학적 특징을 반영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통해 표현하였다. 제작 계획은 <표 2>와 같다.

<표 2> 작품 제작 계획

배경 작품 및 특징	반영 요소 및 의도	색상	일러스트
 <p>자연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 :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p>	<p>자연의 유기적 곡선을 활용하여 불안 장애 증상 표현</p>		
	<p>색감의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불안 장애 환자들의 심리상태 표현</p>		
 <p>색채와 장식성을 활용한 건축물 : 구엘공원</p>	<p>다양한 색채감을 응용하여 조울증 증상 표현</p>		
	<p>불규칙한 패턴을 응용하여 조울증 환자들의 심리상태 표현</p>		
 <p>전통적인 구조 설계 방식을 탈피하고 종교적 상징성을 담은 건축물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p>	<p>스테인드글라스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여 강박장애 증상 표현</p>		
	<p>자연의 색과 빛을 활용하여 강박장애 환자들의 심리 상태 표현</p>		
	<p>조명과 분위기를 활용하여 조현병 증상 표현</p>		
	<p>소품과 분위기를 활용하여 조현병 환자들의 심리상태 표현</p>		

2. 작품 설명 및 제작 과정

1) 작품 I - 공허한 맥박

(1) 작품 설명

작품 I 은 안토니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 카사 밀라와 카사 바트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아트메이크업이다. 카사 밀라의 석재 곡면과 카사 바트요 발코니의 해골 같은 구조를 융합해 불안 장애 환자들의 증상을 시각화하였다.

불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인 극심한 불안과 극도의 긴장감, 두려움¹⁹²⁾을 단순한 직선이 아닌 흐르는 하나의 선을 통해 주체하지 못하는 공포감을 느끼는 교감신경으로 나타내었다. 얼굴 위에 물결치는 듯한 청색 라인을 길게 끌어내려 불안 발작 시 급류처럼 요동치는 생리적 변화를 형상화하였다. 이어지는 곡선이지만 중간에 절단을 드러내 분절된 자아를 강조하였다. 가장 자리에서 중심부로 수렴하지 않고 외곽으로 선을 그리며 환자들의 고립감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정신 질환을 겪는 이들의 불안이 고조될 때 경험하는 내적 동요와 과각성 상태를 그대로 전이하도록 구성한 메이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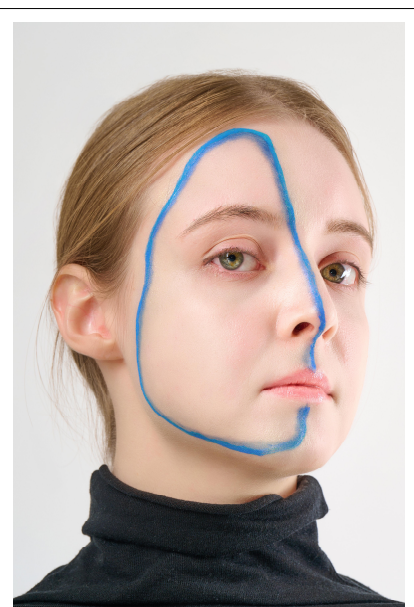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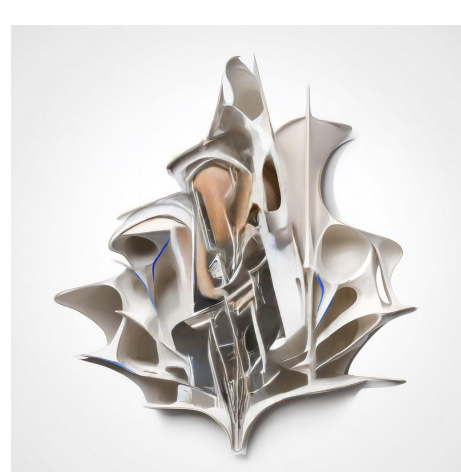
배경으로 활용한 소재는 가우디가 즐겨 사용한 유기적 뼈대 형태를 확장한 것으로 공백 자체를 조형 요소로 삼아 내면과 외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불안함이 생길 때 자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심상을 은유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구조도 들쭉날쭉 솟아오르게 표현한 것도 카사 밀라 옥상 굴뚝의 리드미컬한 실루엣을 재해석한 결과이다. 가우디 특유의 자유 곡면과 불규칙한 구조를 병치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불안 장애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192)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 검색 일자: 2025.02.22.).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퍼프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두들겨준다.
- ② 모델의 피부에 있는 잡티, 다크서클과 동일한 톤의 리퀴드 컨실러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이상의 리퀴드 컨실러를 혼합해 색상을 만들어준다. 이후 미세브러쉬를 사용해 커버하며 깨끗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준다.
- ③ 중간 두께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 처음 얼굴에 도포했던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의 경계선, 컨실러 경계선을 그라데이션 시켜준다.
- ④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하여 처음 얼굴에 사용한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톤의 루스파우더를 피부에 올려주며 유분기를 잡아내고 톤을 정리해준다.
- ⑤ 모델의 눈썹은 헤어 색상과 동일한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 곁을 따라 자연스럽게 드로잉해준다. 이후 스크류브러쉬를 이용해 눈썹 곁을 따라 가볍게 쓸어준다.
- ⑥ 얼굴에 표현할 곡선이 잘 드러나도록 눈화장은 옅은 핑크페이지 색상을 활용한다. 새도우 메인브러쉬를 사용해 아이홀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눈두덩이에 가볍게 올려준다.
- ⑦ 립브러쉬를 이용하여 입술에는 핑크색 립글로즈를 발라준다.
- ⑧ 모델의 얼굴 윤곽을 따라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 라인을 그려준다. 색상은 청록색-초록색-은색 필을 순차적으로 겹겹이 쌓아준다. 이후 립브러쉬를 이용해 색상의 경계선을 그라데이션 해준다.
- ⑨ 작품의 컨셉에 맞도록 건축 구조선,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 불안 장어를 활용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뒤 작품의 배경 화면을 생성해준다.
- ⑩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블렌딩모드를 활용하여 앞서 제작한 인물사진과 생성한 배경 화면을 자연스럽게 합성해준다.

<표 3> 작품 I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공허한 맥박
	작품 주제	불안 장애의 증상, 긴장감 및 불안함
	모티브 작품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
	디자인 요소	유기적 곡선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0>

작품 I - 공허한 맥박

2) 작품Ⅱ- 불안의 소용돌이

(1) 작품 설명

작품Ⅱ의 작품 역시 가우디의 카사 밀라와 카사 바트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불안 장애 환자가 체감하는 불안적 사고와 흔들리는 정체성을 시각화하였다.

한쪽 눈가의 깊은 블루 톤과 음영감으로 카사 바트요의 지중해적 색감과 유리 모자이크의 신비로운 빛 반사를 표현하였다. 반대쪽 눈가의 부드러운 오렌지 톤은 카사 밀라의 모래빛 외벽과 자연이 만든 유기적인 흐름을 반영하였다. 입술의 레드 컬러는 두 세계가 만나는 경계에서 감정과 개성을 강조했고, 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지는 감각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카라 밀라 옥상의 물결형 굴뚝과 카사 바트요 중앙 계단의 나선 구조를 결합해 불안 장애 환자들의 지속적인 긴장감과 탈출구 없는 불안함을 구현하였다. 극도의 불안함에서 초래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드러나는 신체적 증상들은 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¹⁹³⁾. 기분장애를 동반한 파괴된 일상도 해체된 건축물로 표현해 매일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였다.

연구자는 강렬한 색조의 아트메이크업과 해체된 건축적 배경을 배치해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연속이 환자 내면으로 거세게 밀려드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는 폭발적 감정 변화와 이중적 심리를 은유하였다. 모델의 위치와 포즈 또한 작품 끝에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내리깔도록 연출하며 외부 자극을 차단하려는 회피 행동과 내부 소용돌이에 사로잡힌 함몰성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193) DeGeorge, K. C., Grover, M., & Streeter, G. S.(2022).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panic disorder in adults, *American family physician*, 106(2), pp.157-164.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크림 파운데이션을 혼합해준다. 이후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발라준다.
- ② 요철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앞서 사용했던 파운데이션보다 한톤 어두운 컬러의 크림 컨실러를 컨실러브러시를 사용해 피부에 두들겨 올려준다.
- ③ 얼굴의 한쪽 면은 파우더 브러시를 이용하여 투명색의 루스파우더를 올려 매트하게 피부표현을 해준다.
- ④ 반대쪽 얼굴은 퍼프를 이용하여 밤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광대뼈, 눈썹뼈, 턱 라인 쪽에 두들겨 발라준다. 윤곽을 강조하고 광택감 나는 피부를 표현해주기 위해 2번씩 덧발라준다.
- ⑤ 눈썹은 모델의 헤어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브로우 마스크라를 스크류 브러시에 묻힌 뒤 발라준다. 2번씩 눈썹을 쓸어주며 자연스럽게 블렌딩하고 눈썹 곁을 정리해준다.
- ⑥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한 눈가에는 하늘색과 파란색, 청록색을 새도우 베이스브러시를 사용해 눈두덩이 전체, 관자놀이, 눈가 쉼딩라인에 퍼발라준다. 눈썹뼈, 다크서클 라인쪽은 팁브러시를 사용하여 은색 펄을 올려주는데, 펄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서 엮어준다.
- ⑦ 반대쪽 눈가는 새도우 베이스브러쉬로 베이지색을 눈두덩이 전체에 퍼발라 준다. 코랄색은 새도우 메인브러쉬로 쌍꺼풀 라인과 눈매쪽에 발라주고, 브라운색은 새도우 포인트브러쉬로 눈매 라인과 아이홀 라인에 선명하게 그려준다. 블렌딩브러쉬를 이용하여 색상 경계선이 어색한 곳을 그라데이션 해준다.
- ⑧ 펄을 엮은 얼굴 면의 볼터치는 색상을 강조하는 대신 그린과 골드가 섞인 하이라이터로 윤곽을 강조해준다. 사선형의 하이라이터브러쉬를 사용

해 발라줌으로써 윤곽의 광택감이 강조되도록 해준다.

- ⑨ 반대편의 볼터치는 베이지와 코랄색의 블러셔를 작은 사이즈의 파우더브러쉬로 둥글게 굴러서 얹어준다.
- ⑩ 입술 라인도 펴이 강조된 쪽의 입술은 레드 색상을 발라준다. 립브러쉬를 사용해 라인은 각지고 선명하게 그려준다. 반대쪽 입술은 코랄 색상의 립스틱을 립브러쉬로 두들겨서 블렌딩하며 발라준다. 립브러쉬로 투명색 립글로즈를 가볍게 발라주며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한다.
- ⑪ 인물 촬영 시 펴이 강조된 화장 쪽에는 파도의 배경을, 반대편에는 모래사장 배경을 갖다 대어 작업한다.
- ⑫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카사 바트요의 입면 파사드, 불안장애의 정서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해 배경 화면을 생성한다.
- ⑬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앞서 제작한 인물사진, 미드저니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한 배경 화면을 합성해준다. 이후 자동합성모드를 추가로 넣어 모델의 포즈도 함께 생성하며 자연스러운 합성을 만들어준다.

<표 4> 작품Ⅱ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불안의 소용돌이
	작품 주제	불안 장애 환자들의 심리상태, 불안함 및 초조함
	모티브 작품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
	디자인 요소	색감과 질감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1>

작품Ⅱ- 불안의 소용돌이

3) 작품Ⅲ- 기분의 파편

(1) 작품 설명

작품Ⅲ은 ‘구엘 공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공원의 트랜카디스 벤치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조울증의 극적인 감정의 진폭을 표현하였다. 얼굴 위에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원색적 색감을 흩뿌려 메이크업 함으로써 공원 곳곳에 박힌 깨진 타일의 생동감을 되살려 나타내었다. 모델의 표정도 눈 감은 채 미소 짓게 연출하며 외부로 과잉 표출되는 조증과 내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우울 기류를 복합적으로 나타내었다.

연구자는 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인 조증과 우울증의 반복되는 양상¹⁹⁴⁾을 일정하지 않은 색채 배치를 통해 표현하였다. 조증 상태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산만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는 활기찬 색으로 나타내었고 우울증 상태에서 나타나는 무기력함¹⁹⁵⁾은 차갑게 굳은 배경으로 나타내었다.

작품의 배경에는 파편형 세라믹을 채도의 높낮이로 표현하며 감정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과잉 에너지와 무기력을 색감과 타일 패턴의 밀도로 시각화하였다. 배경 상부의 소용돌이 패턴은 공원 내 드래곤 분수 인근의 지붕 타일 물결을 추상화해 표현한 것으로 예고 없이 솟구쳤다 가라앉는 정서적 와류를 형상화하였다. 반면 배경 하부의 균열된 타일 배경은 급격한 기분 하강 시 나타나는 내적 붕괴와 공허함을 시각화하였다. 이 작품은 파편화된 색조와 대비되는 색채, 질감의 배경을 통해 정신 질환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혼란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194) 서울대학교병원, (<https://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857>, 검색 일자: 2025.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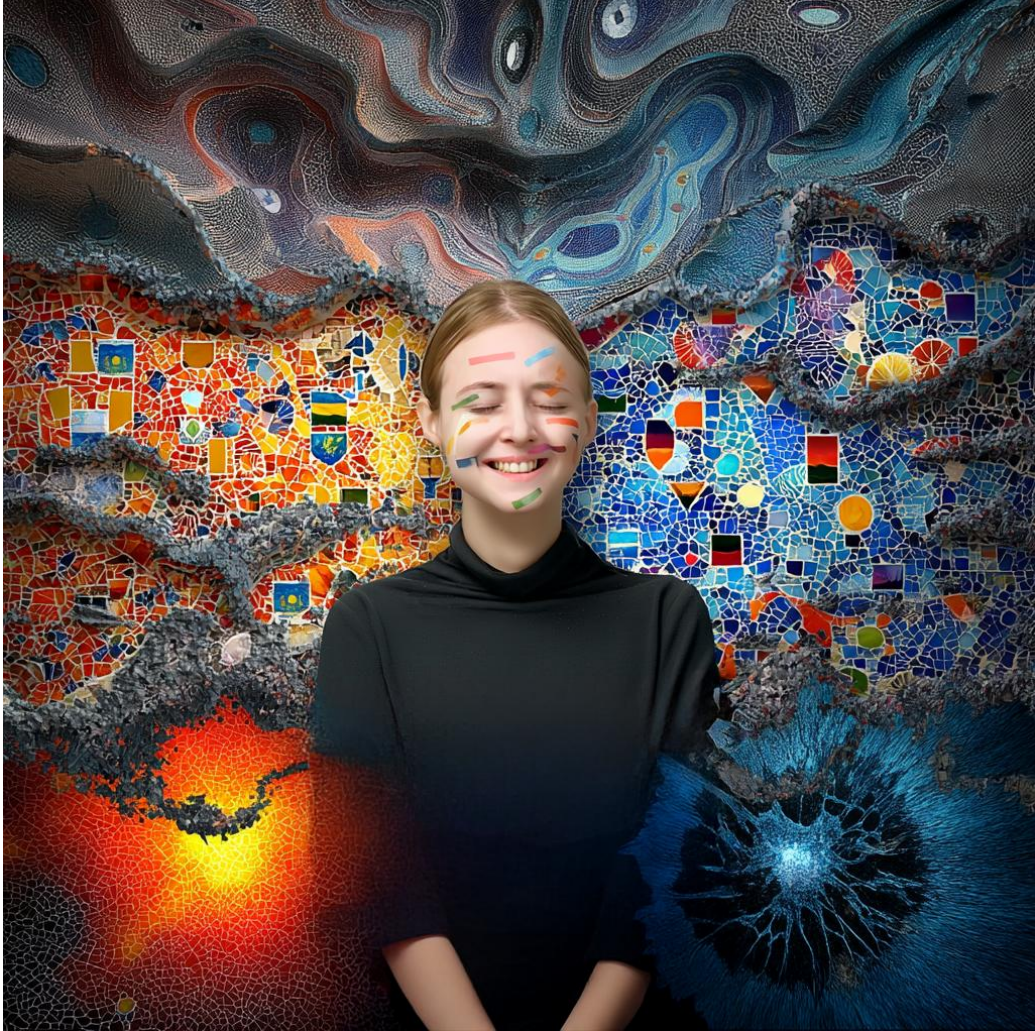
195)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rhc.or.kr/sub03/sub01_05.php, 검색 일자: 2025.02.25).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과 동일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스페출라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얇게 깔아준다.
- ② 앞서 사용한 파운데이션과 동일한 컬러의 리퀴드 컨실러와 크림 컨실러를 준비한다. 리퀴드 컨실러는 컨실러 브러시를 사용해 잡티를 커버하고, 크림 컨실러는 작은 사이즈의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해 면적이 있는 다크서클 부위와 팔자 주름 라인을 커버하며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 준다.
- ③ 브로우 브러시를 활용해 눈썹을 아이브로우 파우더로 채워준다. 빈 부분만 가볍게 채우며 라인도 부드럽게 연결만 해준다.
- ④ 입술은 피부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으로 립브러시를 통해 덮어준다. 그 위에 얇은 핑크색 립글로즈를 발라 은은한 광택감이 나게한다.
- ⑤ 사각형의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해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얼굴 전체에 드로잉한다. 직선 라인의 패턴을 얼굴 전체에 불규칙하게 배열한다.
- ⑥ 구엘공원, 트렌카디스 벤치타일, 조울증과 관련한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작품의 배경 화면을 생성한다.
- ⑦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인물사진과 미드저니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배경 화면을 합성한다. 추가로 자동합성모드를 사용하여 모델의 포즈 추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합성사진을 만들어준다.

<표 5> 작품Ⅲ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기분의 파편
	작품 주제	조울증의 증상, 조증과 우울증
	모티브 작품	구엘 공원
	디자인 요소	트렌카디스 조각
	색상	
디자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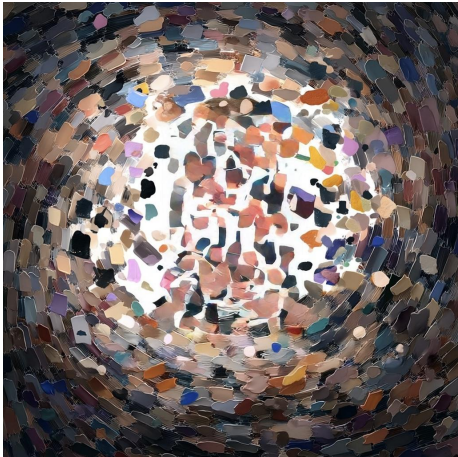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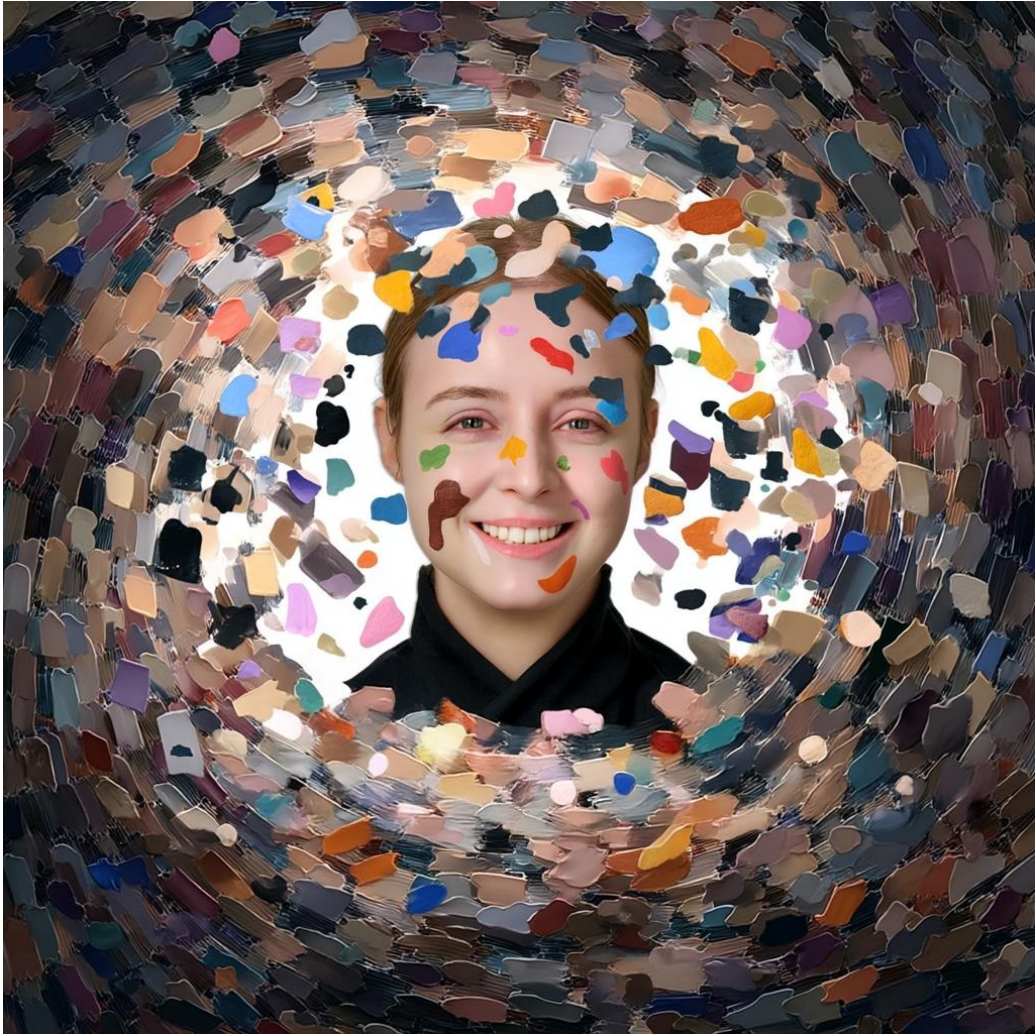
작품Ⅲ- 기분의 파편

(2) 제작 과정

- ① 스페출라를 사용해 모델의 피부톤과 동일한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준다.
- ② 앞서 사용한 파운데이션과 동일한 컬러의 리퀴드 컨실러와 크림 컨실러로 잡티와 다크서클, 팔자 주름 라인을 커버한다. 리퀴드 컨실러는 컨실러 브러시를 사용해 잡티를 커버하고, 크림 컨실러는 작은 사이즈의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해 다크서클 부위와 팔자 주름 라인을 커버한다.
- ③ 눈썹은 아이브로우 파우더를 사용하는데, 브로우 브러시로 빈부분을 채워넣듯이 가볍게 눌러준다. 눈썹의 라인도 부드럽게 연결하며 선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 ④ 입술은 립브러시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발라주었던 파운데이션으로 덮어준다. 이후 옅은 핑크색의 립글로즈를 발라 은은하게 광택을 내준다.
- ⑤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사각형의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발라준다. 불규칙한 크기의 테라조 패턴으로 드로잉해준다.
- ⑥ 구엘 공원, 조울증 심리, 테라조 패턴을 활용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배경 화면을 생성한다.
- ⑦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의 브러시 툴을 활용하여 미드저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배경 화면과 제작한 인물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한다.

<표 6> 작품Ⅳ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감정의 소용돌이
	작품 주제	조울증 환자들의 심리상태, 우울감 및 혼란스러움
	모티브 작품	구엘 공원
	디자인 요소	불규칙한 패턴, 유기적 형태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3>

작품Ⅳ- 감정의 소용돌이

5) 작품 V - 빛의 강박

(1) 작품 설명

작품 V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수직 스테인드글라스를 모티브로 강박장애 환자가 경험하는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들을 재구성하였다. 얼굴 전면에 걸쳐 퍼지는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의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로 들어온 빛이 벽면과 바닥을 물들이는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표현하였다. 색이 뚜렷한 경계를 이루기보다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생기는 부드러운 흐름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당 내부의 높은 기둥과 천장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 효과를 표현한 것으로, 얼굴 위에 구조와 대비를 동시에 만들어내었다. 원형의 부드러운 색 조합을 이마에서 광대, 턱선으로 흐르게 표현하면서 가우디 특유의 곡선적 건축미를 반영하였다.

연구자는 강박장애 환자들이 겪는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의 반복(198)을 색감과 빛으로 표현하였다. 환자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침투되는 생각(199)들을 직선 패턴의 빛으로 나타냈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반복된 강박행동은 최소한의 색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나타내었다. 특정 생각이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환자들의 강박사고(200)도 모델의 눈빛과 표정에 담아내었다.

가우디는 건축에서 빛을 신의 존재가 드러내는 가장 순수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이 작품은 그러한 철학을 얼굴 위에서 구현하였고, 빛을 감정의 장애를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적 매개체로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감정이 절제

198) 김서영, 신정은, 김민주, 권준수, 최수희(2016). 강박장애 및 조현병 환자에서의 정량 뇌파 소견과 신경인지 기능 간의 연관.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23(4).

199) 임준석, 김찬형(2008). 강박증상과 강박장애의 평가, *대한불안학회지*, 4(1), pp.11-18.

200) Singh, A., Anjankar, V. P., & Sapkale, B.(2023).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a comprehensive review of diagnosis, comorbidities, and treatment approaches, *Cureus*, 15(11), pp.10-15.

된 듯한 얼굴에 빛과 그림자의 교차 속에서形形色색의 색채를 얼룩처럼 드러내었다. 이는 억눌린 정서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지는 감정의 단편들을 상징하며, 가우디가 추구한 유연한 건축방식과도 맞닿아있다.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스패출라를 이용해 얇게 발라준다.
- ② 리퀴드 컨실러를 준비한 뒤 미세 브러시를 이용해 잡티를 커버하고 퍼프를 사용해 다크서클, 면적이 넓은 흉터를 두들겨서 커버해준다.
- ③ 모델의 헤어색에 맞는 브로우파우더를 준비하고 브로우브러시를 사용하여 눈썹의 여백을 채워준다. 이후 스크류브러시를 사용하여 파우더가 뭉치지 않도록 가볍게 쓸어준다.
- ④ 앞서 사용했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립브러시를 이용해 입술에 발라준다. 이후 텡브러시를 사용하여 누드톤의 립스틱을 두들겨서 가볍게 발라주고 립브러시로 투명색 립글로즈를 발라 광택감을 내주며 마무리한다.
- ⑤ 스펀지를 사용해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얼굴의 윤곽을 따라 전체적으로 스템핑해준다. 컬러들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스템핑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며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해준다.
- ⑥ 스테인드글라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강박장애 증상들과 관련한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배경 화면을 생성해준다.
- ⑦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그라데이션 모드를 활용해 제작한 인물사진과 미드저니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배경 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해준다.

<표 7> 작품 V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빛의 강박
	작품 주제	강박장애의 행동패턴
	모티브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디자인 요소	빛과 그림자의 흐름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4>

작품 V - 빛의 강박

6) 작품 VI- 번식하는 집착

(1) 작품 설명

작품 VI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삼각형, 마름모형 스테인드글라스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으로 강박장애 환자의 통제되지 않는 충동과 집착 사고의 번식을 압축해 표현하였다. 붉은빛이 강렬하게 강조된 눈썹과 눈가, 깊이감 있는 초록빛 중앙부는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통과한 빛이 성당 내부를 물들이는 순간을 상징하였다.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건축물 내부에 비치는 빛과 어둠의 패턴을 형상화하였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도록 연출하였다. 눈썹을 따라 퍼지는 붉은빛과 얼굴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명암이 가우디 건축의 독특한 곡선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모델의 표정이 완벽한 통제 상황 속 순간적인 안도감을 나타내었다면, 이마 위로 뺨은 헤드피스는 끊임없이 번식하는 집요한 강박 사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강박장애 환자들이 갖는 강박 행동들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한다²⁰¹⁾.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의 반복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마음을 어둡고 추상적인 빛으로 표현하였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한 심리상태가 반복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듯이²⁰²⁾ 단순화한 색감과 타일의 나열로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초록과 주황의 대비, 그 배경으로 사용된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은 이성과 본능, 억제와 분출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하였다.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모양으로 강박 행동에 대한 욕구와 불가능한 사고 증식의 공존을 빛, 식물, 표정의 삼중 레이어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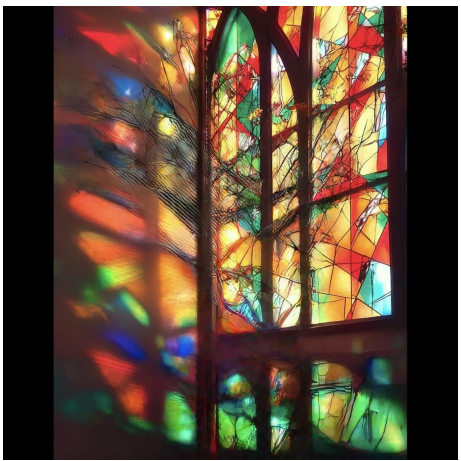
201) Singh, A., Anjankar, V. P., & Sapkale, B.(2023). 전계서, pp.10-15.

202) 정신의학신문,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882>, 검색 일자: 2025.03.03).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과 동일한 톤의 크림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를 발라준다.
- ② 다양한 컬러의 크림 컨실러를 준비한 뒤 피부의 잡티, 다크서클, 주름의 그림자 부분과 비슷한 컬러로 혼합하여 만들어준다. 이후 미세 브러시를 이용하여 잡티를 커버하고,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하여 다크서클이나 주름의 그림자 부분을 커버해 무결점의 피부를 만들어준다.
- ③ 눈썹은 모델의 헤어보다 한 톤 짙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준비해 각지게 그려준다. 아이브로우 펜슬과 비슷한 톤의 브로우 파우더를 준비해 브로우 브러시로 눈썹의 빈부분을 채워주며 진하고 선명한 눈썹을 만들어준다.
- ④ 새도우 베이스 브러시를 이용하여 눈썹의 상단부부터 아이홀 전체, 언더 부분까지 붉게 물든 낙엽컬러의 아이새도우를 펴발라준다.
- ⑤ 메인 브러시를 이용해 옅은 베이지 색상과 브라운 색상을 눈썹 끝, 눈매 끝, 관자놀이까지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라데이션하며 펴발라준다.
- ⑥ 스펀지에 옅은 브라운 색상과 짙은 브라운 색상의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묻혀 눈가와 인중, 뺨쪽으로 두들겨서 그라데이션해준다.
- ⑦ 립브러시를 이용해 초록색의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입술에 발라준 뒤 스펀지로 두들겨 입술 라인과 인중, 턱이 경계선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
- ⑧ 스테인드글라스, 색채 대비, 자연과의 교감, 강박장애 환자들의 심리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해 배경 화면을 생성해준다.
- ⑨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의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여 제작한 인물사진과 미드저니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배경 화면을 자연스럽게 합성해준다.

<표 8> 작품Ⅵ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번식하는 집착
	작품 주제	강박장애 환자들의 심리상태, 걱정 및 염려
	모티브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디자인 요소	스테인드글라스의 색채와 패턴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5>

작품 VI- 번식하는 집착

7) 작품Ⅶ- 분열된 성소

(1) 작품 설명

작품Ⅶ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기둥과 지붕을 모티브로 조현병 환자가 겪는 인지 왜곡, 현실 분열을 공간적 환영으로 재해석하였다. 네추럴한 오렌지톤으로 은은하게 메이크업 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평온함과 따스함을,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도 평정을 찾으려는 자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모델을 성소의 중앙에 배치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감은 눈으로 기도나 명상의 순간을 표현하며 작품 속 공간이 신과의 연결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상징하게 하였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조용한 회랑에서 깊은 사색에 잠긴 느낌을 주며 신앙의 힘, 내면의 평온함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인 톤은 전통적인 종교 미술에서 신성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색상인 골드 빛과 따뜻한 브라운 빛으로 구성하였다. 검은색 의상을 통해 세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앙에 집중하는 느낌을 나타내었고, 작품의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였다. 작품의 배경에는 기둥과 지붕을 들쭉날쭉하게 배치해 조현병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과 환각²⁰³⁾을 시각화하였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거나 실제 하지 않는 대상들을 찾으며 혼자 대화하는 모습²⁰⁴⁾을 따뜻하고 차분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모습²⁰⁵⁾은 모델의 표정과 포즈로 나타내었다. 이 작품은 복합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조현병의 증상²⁰⁶⁾을 작품의 배경으로 상징화하였다.

203)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s.seoul.kr/as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8> 검색 일자: 2025.03.05).

204)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2023). Schizophrenia, NIH Publication No. 22-3517, p.4.





205) 동서병원, (<http://www.dshosp.co.kr/ds/page/disease301>, 검색 일자: 2025.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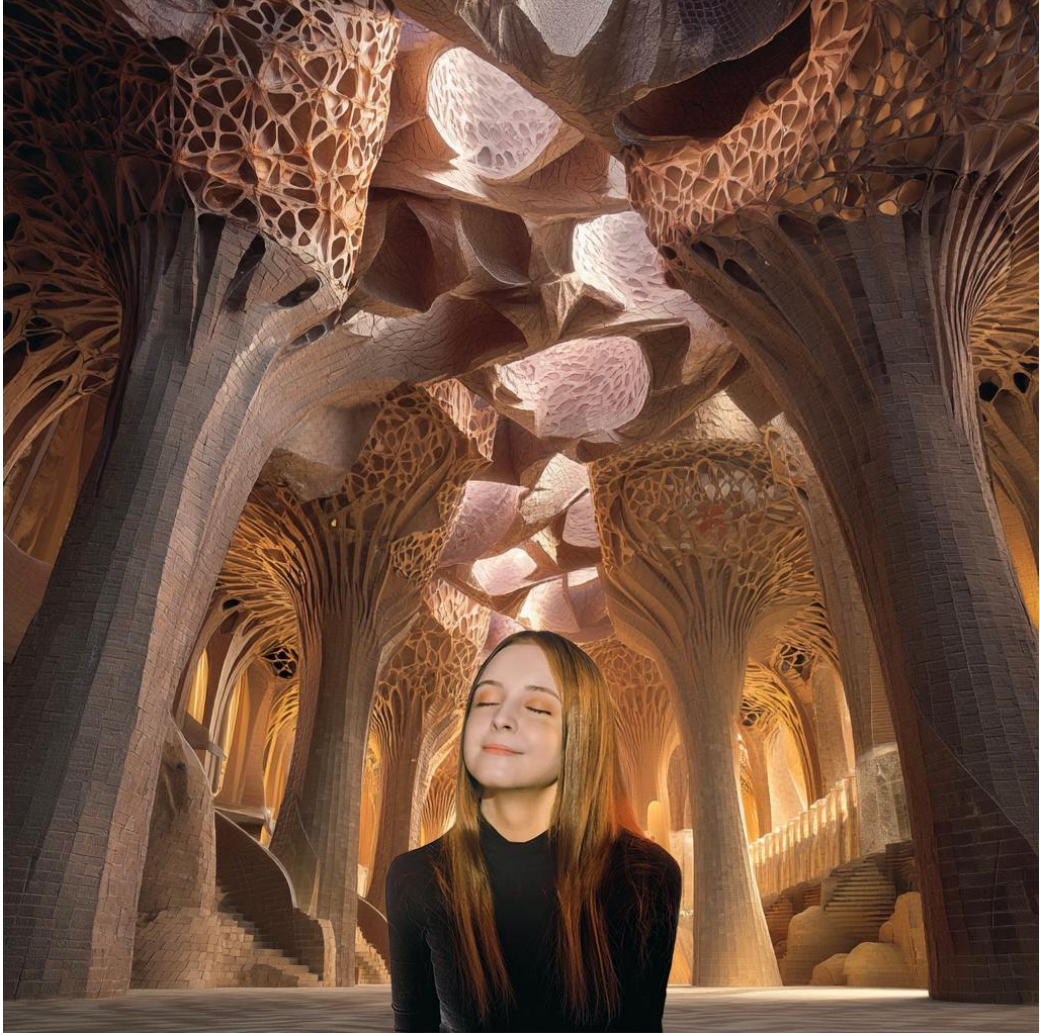
206)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goheung/contentsView.do?pagelId=goheung18> 검색 일자: 2025.03.10.).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과 동일한 컬러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준다.
- ② 모델의 헤어 컬러와 비슷한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준비한 뒤 눈썹을 한올씩 그려주며 빈부분을 채워준다. 이후 아이브로우 펜슬과 비슷한 컬러의 브로우 마스크라를 준비해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준 뒤 눈썹을 가볍게 쓸어준다.
- ③ 새도우 베이스브러쉬를 사용해 베이지 색상의 새도우를 아이홀 전체에 올려준다. 메인브러쉬를 이용해 골드 색상의 새도우를 쌍꺼풀 라인까지 올려주고 그라데이션해준다. 미세브러쉬를 이용해 밝은 골드 펄을 눈의 앞머리, 중간 부분에 찍어주며 올려준다.
- ④ 작게 분할된 인조 속눈썹을 준비한뒤 속눈썹의 중간, 뒷부분에만 붙여주어 눈을 감았을 때 속눈썹이 풍성해 보이도록 해준다.
- ⑤ 작은 원형 브러쉬를 이용해 누드톤의 블러셔를 광대뼈에 원형을 그리면서 올려준다. 아이보리색의 하이라이터를 윤곽에 올려 밝은 톤으로 음영감을 주며 광대뼈가 강조되도록 해준다.
- ⑥ 립브러쉬를 이용해 피치 색의 립스틱을 발라주고 팁브러쉬로 투명색 립 글로즈를 두들겨주며 볼륨감도 살려주고 색상의 경계선도 풀어준다.
- ⑦ 인물 사진 촬영시 성당 내벽에 있는 석재 느낌이 깃든 배경을 덧대어주고 작업해준다.
- ⑧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의 기둥, 조현병, 차분한 색감과 관련한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해 배경 화면을 생성해준다.
- ⑨ 어도비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인물 사진과 미드저니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배경 화면을 그라데이션모드로 자연스럽게 합성해준다. 이후 자동합성모드를 활용해 모델의 포즈도 함께 생성해준다.

<표 9> 작품Ⅶ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분열된 성소
	작품 주제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 환청 및 환각
	모티브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디자인 요소	종교적이고 평온한 분위기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6>

작품Ⅶ- 분열된 성소

8) 작품Ⅷ- 공명하는 환영

(1) 작품 설명

작품Ⅷ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수난의 파사드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으로 조현병 환자가 경험하는 환청과 환영의 괴로운 심리상태를 표현하였다. 창백한 피부 메이크업과 강조된 레드 립은 고립된 현실을 강조한 연출이었다. 아이새도우와 치크는 코랄과 골드빛으로 윤곽이 강조되게 연출했으며 환자들의 겪는 고통스러움을 극대화하였다. 빛과 그림자, 응축된 감정을 통해 내면의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퍼지며 겹쳐지는 얼굴 군상들의 배경을 통해 환각, 망상적 자기 투영, 현실의 무너진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표현을 하거나 정상적인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환자들²⁰⁷⁾의 내면을 모델로 덮고 있는 레이스 천과 감고 있는 눈으로 표현하였다. 네츄럴한 메이크업은 평범한 듯 보이는 환자들의 외면을 나타내었고 두서없는 내면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은 신경이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듯한 배경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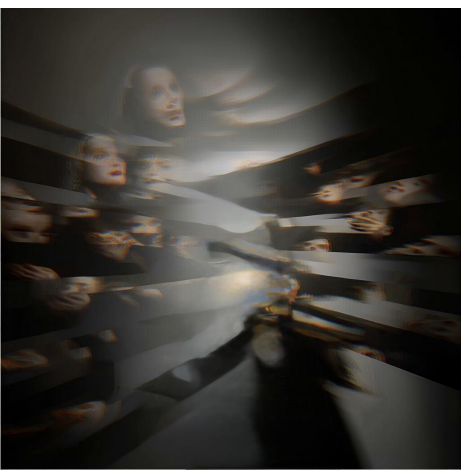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도하는 이의 신앙과 순결함 그리고 신과의 서약을 상징하는 상징성,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경건함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자들의 엉뚱한 심리상태를 면면히 살펴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는 섬세한 레이스와 빛줄기, 닫힌 눈, 그리고 얼굴 위를 흐르는 나뭇가지처럼 퍼지는 광선 문양이 어우러져 있다. 마치 내면의 감정이 고요한 빛으로 표출되며, 동시에 억눌린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순간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배경에 드리난 빛의 뻗어나감은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절규를 암시하게 하였다.

207)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정보센터, (<https://www.ncmh.gov.kr/ncmh/board/boardView.do?jsessionid>, 검색 일자 2025.03.17).

(2) 제작 과정

- ① 모델의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의 크림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이용해 펴발라준다.
- ② 작은 파운데이션브러시를 이용해 앞서 바른 파운데이션과 동일 색상의 크림 컨실러로 두들겨주며 잡티와 흉터, 다크서클을 두껍게 커버한다.
- ③ 모델의 헤어보다 짙은 색상의 아이브로우 펜슬로 라인을 각지게 잡아준다. 이후 브로우브러시를 이용해 아이브로우 펜슬과 같은 컬러의 브로우 파우더를 눈썹 모양대로 채워준다.
- ④ 새도우 베이스브러시를 이용해 누드톤의 새도우를 아이홀 전체에 펴발라준다. 골드필의 새도우는 메인 브러시를 사용해 쌍꺼풀라인을 따라 그라데이션 해준다. 골드필 새도우를 얹은 면적의 2/3 만큼만 브라운 컬러의 새도우로 채워넣어 음영감을 살려준다.
- ⑤ 사선 모양의 블러셔브러시로 피치톤 블러셔를 모델의 구각 방향에 얹어주며 볼의 패임을 약하게 표현한다.
- ⑥ 레드와 오렌지 색상의 립스틱을 혼합해 립브러시를 사용하여 립라인을 강조해 선명하게 발라준다.
- ⑦ 인물 촬영시 면사포를 모델의 정수리에 얹어 기도하는 포즈의 성스러움과 고요함이 강조되도록 해준다.
- ⑧ 어도비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의 자동합성모드를 사용해 인물 사진의 배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합성해준다.
- ⑨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조현병 환자의 심리상태, 고요함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입력해 배경화면을 만들어준다.
- ⑩ 어도비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의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 합성 작업을 완료한 인물의 사진과 미드저니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배경 화면을 합성해준다.

<표 10> 작품Ⅷ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 표		
일러스트	작품명	공명하는 환영
	작품 주제	조현병 환자들의 심리상태, 막연함과 혼란스러움
	모티브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디자인 요소	극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
	색상	
디자인	배경	
		



<그림 37>

작품Ⅷ- 공명하는 환영

<표 11> 작품 결과 정리

제목	공허한 맥박	불안의 소용돌이	기분의 파편	감정의 소용돌이	빛의 강박	번식하는 집착	분열된 성소	공명하는 환영
디자인								
배경								
작품								
설명	카사 밀라. 카사 바르토의 곡면을 모티브 삼아 파란 선으로 불안 장애 특유의 요동치는 심박과 자아 분열을 시각화하였다.	색의 비대칭으로 불안함과 회피가 반복되는 불안 장애 환자들의 심리를 시각화하였고, 나선형 배경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함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나타내었다.	메이크업의 불규칙한 배열과 배경의 채도 대비는 급변하는 조울증 환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강조하였다.	세라믹 파편들의 회오리 형상을 통해 조울증 환자들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나오는 직선 빛의 반복 패턴을 통해 강박장애 환자들이 반복하는 강박행동, 사고들을 시각화하였다.	규칙적인 스테인드글라스 빛의 격자는 강박에 갇힌 사고를, 뺏어나가는 나뭇가지는 무한 증식하는 환자들의 연쇄적인 사고를 나타내었다.	기둥과 지붕이 교차하는 배경, 굴절된 황금광을 통해 현실과 환영을 가늠하기 어려운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을 시각화하였다.	비교적 선명하게 표현된 메이크업과 분명하지 않은 배경의 잔상의 대비를 통해 환청과 환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외침을 나타내었다.

I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 세계를 바탕으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해 정신적 질환의 시각적 표현을 탐구함으로써, 질환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탐색하였다.

건축가 가우디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유기적 곡선, 다채로운 색채, 독창적 형태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시각적 언어를 구축한 가우디 건축의 특징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아트메이크업과 결합될 때 정신질환과 환자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데 기여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형태와 색채의 조합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감성에 중점을 두었고, 다음의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작품 I, II는 가우디의 건축물 ‘카사 밀라’와 ‘카사 바트요’에서, 작품 III, IV는 ‘구엘 공원’, 작품 V, VI, VII, VIII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아트메이크업이다.

작품 I - 얼굴 위에 유려한 곡선을 그려 넣어 불안 장애가 만들어 내는 내면의 파동을 형상화하였다. 물결치는 선과 비틀린 건축 배경은 증상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자연, 건축, 감성이 어우러진 치유적 미학을 제시하였다.

작품 II - 얼굴의 좌우를 상반된 색감으로 나누어 양극성 장애의 이중적 심리를 드러내었다. 자유로운 형태미와 대비되는 레드 립은 감정의 폭발을 강조하며, 불안 장애 환자들의 감정의 딜레마를 압축해 표현하였다.

작품 III - 원색의 파편으로 구엘 공원의 트렌카디스를 재해석하고, 불규칙

한 패턴과 선명한 톤으로 조울증의 다양한 증상을 시각화하였다. 파편의 색채, 채도의 대비를 통해 조울증이 만들어 내는 감정의 비대칭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조울증의 증상을 시각화하였다.

작품Ⅳ- 나뭇잎, 바람, 파도 같은 자연의 요소에서 착안한 유기적 패턴을 3차원 조형물처럼 얼굴에 배치하였다. 수천개의 세라믹 파편을 회오리처럼 표현해 조울증 환자들의 감정 진폭을 직관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Ⅴ- 스테인드글라스 빛이 얼굴을 스치는 설정으로 강박장애를 표현하였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의 색채 배치를 통해 성당 내부의 빛을 재현하였고, 건축적 깊이와 곡선을 반영해 강박적 증상을 예술적인 매개체로 구현하였다.

작품Ⅵ- 강박장애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자연과 건축의 결합으로 풀어내었다. 메이크업, 머리 장식,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이 한데 맞물려 강박장애 환자들의 긴장과 염려 섞인 심리상태를 나타내었다.

작품Ⅶ- 조현병의 산만함을 종교적 상징과 결합해 재해석하였다. 따뜻한 황금빛의 메이크업과 배경의 톤은 조현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환영과 환각의 세계를, 감은 눈과 평온한 미소는 기도와 명상의 순간을 떠올리게 연출하였다. 절제된 색감과 부드러운 그림자로 내면의 혼란과 외적인 평온을 강조하였다.

작품Ⅷ-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품고 있는 신앙의 깊이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메이크업을 통해 현실 지각에 대한 왜곡과 정신 분열의 중첩된 심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배경에 복수의 얼굴 잔상들을 그리며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과 환영을 메아리치듯이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가우디의 건축요소와 정신질환의 증상, 환자들의 심리상태가 만났을 때 어떻게 아트메이크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이었다. 작품 제작을 통해 아트메이크업이 장식적 수단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 질환을 미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아트메이크업이 그 감정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참신한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정신적 질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표현 기법의 폭이 좁았다는 게 한계점으로 남았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비언어적 소통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 질환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탐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트메이크업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점차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전시회나 미디어를 활용해 심리적 치유 경험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학위 논문 >

- 장수경(2017).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78.
- 김수인(2023). 가우디 건축물의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한 무용창작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4.
- 김양희(2011). 미술교육적 관점에서 본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46.
- 김영천(2013).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 재활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민(2002). 뭉크(Edvard Munch)의 회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45.
- 나동훈(1997). 인본주의 철학이 디자인에 미친 영향과 디자인의 종교적 도약 'leap'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46.
- 노유미(2014).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조형요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7.
- 문주현(2007). 종교건축에서 있어서 분석심리학의 원형적 표상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6-157.

- 박소정(2004).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모데르니스모(Modernismo) 건축,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47.
- 박주영(2013).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자연유기적인 구조 형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9.
- 선민아(2009).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78.
- 손명환(2020).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자연주의 특징을 응용한 장신구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 손연자(2001). Gaudi 건축에 나타난 조형성과 색채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20.
- 안서영(2013). 아르누보를 표현한 아트 웨딩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5.
- 안현주(2011). 안토니 가우디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7-349.
- 오성림(2012).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한성대학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 이준호(2009). Antoni Gaudi i Cornet 건축작품 입구공간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122.
- 이지은(2015). 쿠사마 야요이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통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45.
- 이충현(2023). 꿈과 정신 질환의 시각화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49.

- 장수영(2019). 칼라테라피 원리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연구: 사용자 연구를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30.
- 장한수(2009). 친환경 초고층 주거 건축물 설계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7-89.
- 정은주(2004). 가우디 건축모티브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37.
- 최미현(2012). 안토니오 가우디의 아르누보 양식을 모티브로 한 헤어디자인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20.
- 최성현(2003). 안토니 가우디 코르네(Antoni Gaudi Cornet)의 작품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 최은영(2006). 안토니 가우디 코르네(Antoni Gaudi Cornet) 건축의 조각적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3.
- 피수철(2015).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커트 디자인 개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0.

<학회지>

- 곽수민, 황석현, 설진미, 김예니, 정희연.(2013). 일반인의 피해망상적 사고와 과대망상적 사고의 여부에 따른 정신증 경향성에서의 차이,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2, pp.91-97.
- 김관중(2017). 가우디 건축 프린트 패션디자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지, 31, pp.7-19.
- 김대년(2004). 카사 바트요 조형특성과 건축사고, 한국주거학회지, 15(5), pp.21-32.

- 김리원(2023). 안토니 가우디에 대한 연구, 숙명디자인학회지, 35, pp.11-16.
- 김민정 & 임지영(2012).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p.57-71.
- 김서영, 신정은, 김민주, 권준수, 최수희(2016). 강박장애 및 조현병 환자에서의 정량 뇌파 소견과 신경인지 기능간의 연관,.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23(4).
- 김세희 & 이정민(2007). 포토샵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3(3), pp.1-10.
- 김소라 & 한가영 & 하문선 & 김선희 & 홍인선(2014).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아트메이크업디자인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4(2), pp.197-208.
- 김희곤(2007). 빛의 그림자, 그림자 Space, Lighting and Shadow, 월간 CONCEPT학회지, 100, p.160
- 박리라(2016). 테페이즈망 아트메이크업, 한국융합학회지, 7(3), pp.35-44.
- 박무귀(2018). 이야기가 있는 사진 여행-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사학회지, 591, pp.98-101.
- 박선경 & 지상현(2004).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작품을 응용한 부조적 의상 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학회지, 5(2), pp.394-401.
- 박지니(2020). [교양이의 미술 토크]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_ 고달픈 마음에 드리운 별빛, 유레카학회지, 445, pp.78-81.
- 방수진(2010).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1), pp.225-236.
- 백경순 & 최은경(2015). 전시 문화아트상품 개발 프로세스 연구: 가우디 건축의 트렌카디스 모자이크패턴을 적용한 문화아트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애니메이션학회지, pp.32-33.

- 손기기 & 장수월 & 김혜균(2024). 앙리마티스 회화에 나타난 시대별 특징과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학회지, 22(2), pp.279-292.
- 안현주 & 장미숙(2011). 안토니 가우디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7(2), 345-354.
- 여지선(2014). 에르바르트 뭉크를 통한 이승하의 세 가지 시선. 우리말글학회지, 61, pp.243-271.
- 윤희(2021). 아트메이크업 사이키델릭 미적 특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2021.5, pp.113-115.
- 이영식(2021). 반 고흐 정신세계 고찰, 신경정신의학학회지, 60(2), pp.97-119.
- 이우종 & 김남정(2005).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학회지, 40(6), pp.177-192.
- 이지은 (2003). 오노 요코 〈컷 피스〉, 서양미술사학회지, 19, pp.59-77.
- 이혁진 & 임근욱(2011).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의 이해,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1), pp.1-10.
- 유재영 & 이연희(2011). 안토니 가우디 작품의 트랜카디스 이미지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복식문화연구학회지, 19(4), pp.751-765.
- 임남숙(2017). 가우디 예술분석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예술교육연구학회지, 15(4), pp.1-18.
- 임준석 & 김찬형(2008). 강박증상과 강박장애의 평가, 대한불안학회지, 4(1), pp.11-18.
- 장서원(2022). [LOCAL&GLOBAL] 가우디의, 가우디에 의한, 가우디를 위한 조형예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월간사진학회지 651, pp.136-139.

- 정여울(2023). 정여울의 나란히 한 걸음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건축의 힘: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나라경제학회지, 34(12), pp.66-69.
- 조규영(2012). 구엘공원 주거단지와 석조교량 소고, 건설안전기술학회지, 55, pp.37-51.
- 주매희(2011). 구엘공원과 타로공원의 탈장르화 현상, 유럽문화예술학회지, 2(2), pp.183-205.
- 표민웅(2024). 건축가 안톤 가우디 세계, 수필시대학회지, 22(봄), pp.177-192.

<단행본>

- 고명수(2018). 정신건강론, 경기도: 정민사, pp.3-5.
- 김광우(2003). 몽크,쉴레,클림트의 표현주의, 서울: 미술문화, pp.194-196.
- 김미리(2010).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pp.30-50.
- 김영(2018). (자동차로 떠나는) 스페인 가족여행, 서울: 북랩, pp.80-83.
- 김유민(2017). 서른살 여행기, 경기도: 부크크, pp.132-134.
- 김지선(2007). 예술가의 집, 서울: 예경, pp.94-97.
- 김희곤(2014). 스페인은 건축이다, 경기도: 오브제, pp.288-290.
- 문태선(2021). 수학이 보이는 가우디 건축여행, 경기도: 궁리, pp.194-205.
- 박철민(2015).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인쇄, pp.243-244.
- 박홍식(2007). 유럽의 도시와 건축 이야기, 대전: 관성문화사, pp.118-120.
- 스즈키 히로유키(2009).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축 이야기, 서울: 까치.
- 신양란(2014). 가고 싶다 바르셀로나, 서울: 지혜정원, pp.174-175.
- 유혜영(2010). 스페인 디자인 여행, 경기도: 안그래픽스, pp.222-225.
- 윤희철(2015). 유럽을 스케치하다, 경기도: 린, pp.60-61.

- 이리에 마사유키(2017). 안토니오 가우디, 서울: AK TRivia Special, pp.14-75.
- 이병창(2024). (헤겔 미학 산책) 정신의 표현 기호로서 예술, 서울: 먼빛으로, pp.10-12.
- 이인화(2021). (중년 부부의) 좌충우돌 스페인 여행기, 서울: 북랩, pp.34-36.
- 이재환(2018). 베스트 오브 스페인 101, 서울: 테라, pp.62-65.
- 이현숙(2018). 잠깐이어도 괜찮아, 경기도: 부크크.
- 장열근(2002). 유럽 테마여행, 서울: 서울문화사, pp.40-41.
- 정보상(2017). 유럽여행 베스트 123, 서울: 상상출판, pp.72-74.
- 정수철(2019). 가우디의 기호들·사그라다 파밀리아, 경기도: 좋은땅.
- 조명화(2016). 구엘공원, 서울: 교보문고.
- 조정희(2017). (직장인을 위한) 7일의 스페인, 서울: 아홉 번째서재, pp.48-51.
- 최연욱(2016). 반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32가지, 서울: 소울메이트, pp.158-161.
- 최우용(2011). 유럽방랑 건축 + 서화, 경기도: 서해문집, pp.202-203.
- 최준석(2010). 어떤 건축, 서울: 바다, pp.34-36.
- 최철호(2015). (내가 가고 싶은) 유럽VS유럽, 서울: 시공사, pp.134-137.
- Abildgaard, Malene.(2018). 만들고 그리고 배우자, 경기도: 부코, pp.124-125.
- Borras, Maria Lluisa.(1985). 가우디의 2개의 아파아트, 서울: 집문사, pp.6-33.
- Roland, Francois Rene.(1997). 가우디의 작품, 서울: 집문사, pp.138-147.
- Strickland, C.(2010). 클릭, 서양건축사, 서울: 예경, pp.212-214.

국외문헌

- Architectural Dossier.(2019). Fundació Catalunya La Pedrera-Casa Milà.
- Avdeeva, Y. N., Degtyarenko, K. A., Kolesnik, M. A., Koptseva, N. P., Pchelkina, D. S., & Shpak, A. A.(2020). Architectural space in the paintings by Vincent van Gogh. *Journal of Siberian Federal University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3(6), pp.838-859.
- Azevedo, V. F., & Diaz-Torne, C.(2008). The arthritis of Antoni Gaudí, *JCR: Journal of Clinical Rheumatology*, 14(6), pp.367-369.
- Beato, A., da Costa, L. P., Carvalho, A., Albuquerque, S., & Santos, I.(2024). WeARTolerance: Evaluating the impact of an arts-based program to reduce mental-health-related stigma in young people, *PLOS ONE*, 19(12), e0314994.
- Blazhenkova, O., & Kumar, M. M.(2018). Angular versus curved shapes: Correspondences and emotional processing, *Perception*, 47(1), pp.67-89.
- Browne, C.(2008). Gaudí's organic geometry. *Computers & graphics*, 32(1), pp.105-115.
- Burrows, K.(2023). Expressive Arts in Ecotherapeutic Contexts: a social intervention for Autism (Doctoral dissertation, Anglia Ruskin Research Online (ARRO)).
- Burrows, K.(2024). Mad Academics: Mental Health Autoethnography.
- Ciranna, S.(2016). Gaudí y la reinención del orden arquitectónico. *ArcHistoR*, (6), pp.86-105.

- Crippa, M. A.(2003). Antoni Gaudí, 1852–1926: From Nature to Architecture, Taschen, pp.6–11.
- Curry, N. A., & Kasser, T.(2005). Can coloring mandalas reduce anxiety?, *Art Therapy*, 22(2), pp.81–85.
- DeGeorge, K. C., Grover, M., & Streeter, G. S.(2022).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panic disorder in adults, *American family physician*, 106(2), pp.157–164.
- Elliot, A. J.(2015). Color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Frontiers in psychology*, 6, 127893.
- Emekci, S.(2022). Using Nature in Architecture: A perspective from Antoni Gaudí, *Avrupa Bilim ve Teknoloji Dergisi*, (34), pp.87–91.
- Estrada Gonzalez, V., Meletaki, V., Walker, M., Payano Sosa, J., Stamper, A., Srikanchana, R., ... & Chatterjee, A.(2024). Art therapy masks reflect emotional changes in military personnel with PTSS, *Scientific Reports*, 14(1), 7192.
- Fried, E. I., & Robinaugh, D. J.(2020). Systems all the way down: embracing complexity in mental health research, *BMC medicine*, 18, pp.1–4.
- Fundacio Junta Constructora del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ilia.(2022). Information Booklet 9: Interior of the Basilica (Eng.).
- Glory Facade.(2022). Baptistry and Chapel of Penitence and the Sacrament (Booklet 8), Junta Constructora del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ilia, p.2.
- Goldberg, R.(2020). *Performance Art: From Futurism to the Present*, 4th, Thames & Hudson, p.150.

- Hallac, U.(2023). The effect of Vincent Van Gogh's psychopathology on his works. *Journal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6(2), pp.507-519.
- Huerta, S.(2006). Structural design in the work of Gaudi,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49(4), pp.324-339.
- Jerrentrup, Maja Tabea.(2020). The Body as Canvas as Picture: Bodypaint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and Art Studies*, 4(2), pp.44-60.
- Langer, A., & Braga, A. V.(2021). Geometry and Color, Decoding the Arts of Islam in the West from the Mid-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pp.17-65.
- Liu, J.(2017). Anatomy of Gaudi's Curve Architectural Language,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6(7), pp.33-38.
- Lu, Y.(2023). A comparative study of two architectural reconstruction design of Casa Batlló, In *SHS Web of Conferences*, Vol. 167, p. 01009, EDP Sciences, p.1.
- Mackay, D.(1985). *Modern architecture in Barcelona*, Londres: Anglo-Catalan Society.
- Makert, R., & Alves, G.(2016). Between designer and design: Parametric design and prototyping considerations on Gaudis Sagrada Familia. *Periodica Polytechnica Architecture*, 47(2), pp.89-93.
- Meirelles, C. R. M., & Beraldo, P. N., & Nazareth, S. B. M.(2019). Geometric Shape, Structure and Material in Antoni Gaudi's Work: The Colònia Güell Crypt and the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ilia,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13(10), pp.608-621.

- Moreno-Navarro, A. G.(2019). Antoni Gaudi, a lone wolf in European architecture, *Catalan Historical Review*, pp.57-72.
- Muri, S. A.(2007). Beyond the face: Art therapy and self-portraiture, *The Arts in Psychotherapy*, 34(4), pp.331-339.
- Nasir, O., Akhtar, W., Iqbal, M F., & Kamal, M A.(2022). Analyzing the Architecture of Antonio Gaudí with Reference to Art Nouveau Style: An Inspiration from Nature,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Science*, 3, pp.309-317.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2023). Schizophrenia, NIH Publication No. 22-3517, p.4.
- Posselt, J. R., & Lipson, S. K.(2016). Competition,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college classroom: Variations by student identity and field of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8), pp.973-989.
- Ramzy, N. S.(2022). Beyond Sustainability, Design for Well-Being: Gaudí's Monument to Nature, Biomimetic Functions with Biophilic Morphology, *Journa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28(1), p.5.
- Rose, M. S.(2000). Antoni Gaudi: God's Architect,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Sacred Architecture*, 3(2), pp.2-12.
- Santamaria, C. R.(2023). The The Guell Pavilions of Antoni Gaudi as an example of new mythology, *De arte: revista de historia del arte*, (22), pp.225-245.
- Singh, A., & Anjankar, V. P., & Sapkale, B.(2023).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a comprehensive review of diagnosis, comorbidities, and treatment approaches, *Cureus*, 15(11), pp.10-15.

- Smith, A. P., & Alheneidi, H.(2023). The internet and loneliness, *AMA Journal of Ethics*, 25(11), pp.833–838.
- Stuckey, H. L., & Nobel, J.(2010). The connection between art, healing, and public health: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2), pp.254–263.
- Tojner, P. E.(2003). *Munch: In His Own Words*, Preste, p.135.
- Triolo-Rodriguez, R.(2023). Exploring core concepts and uses of makeup in expressive arts therap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Master's thesis, Lesley University, Lesley University Digital Commons.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019). The Restauration of Casa Batllo, from inside to beyond its walls–Works of Antoni Gaudí, Spain, Project dossier No. 173356, p.1.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024). Periodic Reporting Cycle 3, Section II: Works of Antoni Gaudí, Property 320 bis.
- Venugopal, R. K.(2020). From concept to character: The influence of architectural principles on costume and makeup design in theatr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e Research Thoughts*, 8(2), pp.2192–2199.
- Yang, Y., Niu, L., Amin, S., & Yasin, I.(2024).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global study of unemployment's influence on diverse mental disorder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1440403.

기타

건축사 학회 블로그,

<https://www.sah.org/sah-blog/2017/12/13> (검색 일자: 2024.11.03.)

카톨릭익스체인지,

[https://catholicexchange.com/sagrada Família:A Symbol of Rediscovered Faith](https://catholicexchange.com/sagrada-Familia:A-Symbol-of-Rediscovered-Faith)

(검색 일자: 2024.11.03.)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https://whc.unesco.org/en/list/320/>, 검색 일자: 2024.11.05.)

사그라다 파밀리아,

[https://sagradafamilia.org/Antoni Gaudí -Humanism and spirituality](https://sagradafamilia.org/Antoni-Gaudi-Humanism-and-spirituality) (검색 일자: 2024.11.05.)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1.07.)

바르셀로나 티켓, <http://www.barcelona-tickets.com/> (검색 일자: 2024.11.09.)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1.13.)

사그라다 파밀리아 블로그, <http://blog.sagradafamilia.org/> (검색 일자: 2024.11.13.)

건축다이제스트,

<https://www.architecturaldigest.com/story/la-sagrada-familia-everything-you-need-to-know> (검색 일자: 2024.11.20.)

사그라다 파밀리아 티켓

<http://www.sagrada-familia-ticket.com/facades> (검색 일자: 2024.11.20.)

성 크리스토팔 마갈라네스와 동반자들,

<https://aleteia.org/2022/12/15/sagrada-familia-finishes-towers-of-evangelists-luke-and-mark> (검색 일자: 2024.11.25.)

미다스 캐드,

http://www.midascad.com/cad_archive/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1.25.)

카사 바트요, <http://casabatllo.es/> (검색 일자: 2024.11.28.)

사그라다 파밀리아, <http://sagradafamilia.org/> (검색 일자: 2024.11.28.)

셔터스톡,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spain-september-24-2015-temple-2523534355> (검색 일자: 2024.12.02.)

셔터스톡,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barcelonaspain-12-72014-view-east-facade-1047646966> (검색 일자: 2024.12.02.)

셔터스톡,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spain-june-13-2019-aerial-1503812780> (검색 일자: 2024.12.04.)

미다스캐드,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sagrada-familia (검색 일자: 2024.12.04.)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https://parkguell.barcelona/en/park-guell/emblematic-features/hypostyle-room>
(검색 일자: 2024.12.07.)

파크구엘-바르셀로나 티켓,

<https://park.barcelonatickets.org/the-hypostyle-room-in-park-guell-barcelona/>
(검색 일자: 2024.12.07.)

셔터스톡,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spain-march-12-park-guell-138278063> (검색 일자: 2024.12.11.)

바르셀로나샵,

<https://www.barcelona.shop/en/tour/park-guell-tour.html> (검색 일자: 2024.12.11.)

픽스 히어, pxhere, <https://pxhere.com/ko/photo/659095> (검색 일자: 2024.12.13.)

바르셀로나 티켓,

<https://www.barcelona-tickets.com/park-guell/> (검색 일자: 2024.12.13.)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tghouse/220159531854> (검색 일자: 2024.12.18.)

카사 바트요, <https://www.casabatlo.es/ko/> (검색 일자: 2024.12.18.)

카사 밀라,

<https://www.lapedrera.com/ko/architect-antoni-gaudi/work> (검색 일자: 2024.12.18.)

디스커버 이미지,

<https://www.discoverimages.com/central-light-inside-casa-batllo>

(검색 일자: 2024.12.20.)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asa_Batl%C3%B3 (검색 일자: 2024.12.21.)

카사바트요,

<https://www.casabatlo.es/ko/antoni-gaudi/casa-batllo/facade/> (검색 일자: 2024.12.21.)

카사바트요,

<https://www.casabatlo.es/ko/antoni-gaudi/casa-batllo/inside/>

(검색 일자: 2024.12.27.)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asa_Batl%C3%B3 (검색 일자: 2024.12.27.)

바르셀로나투어가이드,

<https://www.barcelona-tourist-guide.com/ko/gaudi/kasa-batllo.html>

(검색 일자: 2024.12.30.)

카사바트요

<https://www.casabatllo.es/ko/online-tickets/> (검색 일자: 2024.12.30.)

카사바트요,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batllo/inside/> (검색 일자: 2025.01.05.)

셔터스톡,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barcelona-july-19-view-famous-sagrada-1145587766> (검색 일자: 2024.12.02.)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https://parkguell.barcelona/en/node/311> (검색 일자: 2024.12.13.)

타임리스 아키텍처,

<https://archeyes.com/casa-mila-by-antoni-gaudi-a-modernist-masterpiece-in-barcelona> (검색 일자: 2025.01.08.)

카사 밀라,

<https://www.lapedrera.com/en/blog/gaudi-made-holes-casa-mila>
(검색 일자: 2025.01.10.)

타임리스 아키텍처,

<https://archeyes.com/casa-mila-by-antoni-gaudi-a-modernist-masterpiece-in-barcelona/> (검색 일자: 2025.01.10.)

카사 밀라,

<https://www.lapedrera.com/en/la-pedrera/heritage-and-accolades>
(검색 일자: 2025.01.10.)

타임리스 아키텍처,

<https://archeyes.com/casa-mila-by-antoni-gaudi-a-modernist-masterpiece-in-barcelona/> (검색 일자: 2025.01.15.)

티스토리, <https://jerrystory.tistory.com/321> (검색 일자: 2025.01.18.)

카사밀라,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mila-la-pedrera/>

(검색 일자: 2025.01.18.)

카사밀라,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mila-la-pedrera/>

(검색 일자: 2025.01.18.)

카사밀라,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mila-la-pedrera/>

(검색 일자: 2025.01.21.)

티스토리, <https://dolami.tistory.com/36> (검색 일자: 2025.01.21.)

라페드레라건축,

<https://www.lapedrera.com/ko/la-pedrera/architecture> (검색 일자: 2025.01.25.)

라페드레라건축,

<https://www.lapedrera.com/ko/la-pedrera/architecture> (검색 일자: 2025.01.25.)

질병통제예방센터,

<https://www.cdc.gov/social-connectedness/risk-factors/index.html>

(검색 일자: 2025.01.27.)

세계보건기구,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disorders>

(검색 일자: 2025.01.29.)

메디칼업저버,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42>

(검색 일자: 2025.01.29.)

헬쓰라인,

<https://www.healthline.com/health/depression/hidden-depression>

(검색 일자: 2025.02.01.)

정신의학회,

<https://www.psychiatry.org/patients-families/anxiety-disorders/what-are-anxiety-disorders> (검색 일자: 2025.02.03.)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tarry-Night> (검색 일자: 2025.02.05.)

반고흐 뮤지엄, <https://vangoghletters.org/> (검색 일자: 2025.02.05.)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cream-by-Munch> (검색 일자: 2025.02.10.)

먼슬리 아트,

<https://monthlyart.com/portfolio-item/yoko-onomusic-mind/> (검색 일자: 2025.02.10.)

포틀랜드 재패니즈 가든,

<https://japanesegarden.org/2024/07/16/wish-tree-yoko-ono/> (검색 일자: 2025.02.12.)

이메진피스타워,

<https://www.imaginepeacetower.com/yoko-onos-wish-trees/> (검색 일자: 2025.02.12.)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tarry-Night> (검색 일자: 2025.02.15.)

아트앤컬처,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van-gogh-39-s-bedroom-in-arles>
(검색 일자: 2025.02.15.)

카사바트요,

<https://www.casabatllo.es/ko/antoni-gaudi/casa-batllo/facade/>

(검색 일자: 2025.02.16.)

브리태니커,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Scream-by-Munch> (검색 일자: 2025.02.17.)

퉁크뮤지엄,

<https://www.munchmuseet.no/en/our-collection/the-sick-child/>

(검색 일자: 2025.02.17.)

워드프레스,

<https://florica.wordpress.com/2007/09/11/yoko-ono-cut-piece/> (검색 일자: 2025.02.20.)

셜북스,

<https://abeautifulresistance.org/site/2024/3/12/yoko-ono-music-of-the-mind>

?utm_source (검색 일자: 2025.02.20.)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 (검색 일자: 2025.02.22.)

서울대학교병원,

<https://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357>

(검색 일자: 2025.02.25.)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mhc.or.kr/sub03/sub01_05.php (검색 일자: 2025.02.25.)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tiratavel/221374827091> (검색 일자: 2025.02.26.)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94)

[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94](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94) (검색 일자: 2025.02.27.)

정신의학신문,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382> (검색 일자: 2025.03.03.)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8>

(검색 일자: 2025.03.05.)

동서병원,

<http://www.dshosp.co.kr/ds/page/disease301> (검색 일자: 2025.03.05.)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goheung/contentsView.do?pageId=goheung18>

(검색 일자: 2025.03.10.)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정신센터,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jsessionid>

(검색 일자: 2025.03.17.)

ABSTRACT

A Study of Art-Makeup Works Inspired by Antoni Gaudí's Architectural Aesthetics

Kim, Dae Eun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Major

Departmen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University

In today's world, where technological leaps and relentless competition intensify psychological strain, mental-health disorders have become a familiar social issue. Because ordinary language struggles to convey the layered emotions tied to such conditions, this study turns to art-make-up, a practice that treats the human body as a living canvas. By fusing the fluid curves, radiant colours and structural idiosyncrasies of Antoni Gaudí's architecture with make-up design, the research seeks to render the shifting inner landscapes of people experiencing mental illness.

The work began with a close reading of Gaudí's major projects to distil aesthetic principles that resonate emotionally. Those findings were matched with a theoretical exploration of art-make-up techniques and of

how particular psychiatric disorders project a distinct visual identity. The resulting design framework guided the creation of eight art-make-up pieces, each aimed at giving visible form to a specific psychological state or symptom cluster.

The first two pieces draw on Casa Mila and Casa Batllo. Their sweeping lines and fractured highlights recast the tension, apprehension and physical unease typical of generalised anxiety, setting fragmented facial strokes against backgrounds that pulse with organic motion. The third and sixth works shift to Park Güell: its trencadis mosaics and free-flowing patterns become metaphors for bipolar disorder, with jagged chromatic contrasts capturing the rapid swing from exaltation to depression, and playful palettes hinting at an underlying sense of captivity.

The fourth and fifth pieces relocate to the soaring interior of the Sagrada Família. Here, obsessive-compulsive traits are articulated through rhythmic glints of stained-glass light and muted, wood-toned make-up that evokes the weight of repetitive thought, while warm floral tints and softly diffused glows introduce a subtle message of hope and recovery. The final two creations, also set within the basilica, address schizophrenia. One opts for a serene, natural palette to counter common stereotypes, its quiet grace inviting empathy; the other amplifies disorientation through a vortex of turbulent strokes and a single vivid lip colour that reads as a silent cry for relief.

Across all eight works, cosmetic embellishment moves beyond decoration to operate as a visual language that makes invisible suffering

visible.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rt-make-up, when informed by architectural symbolism, can open new avenues for public understanding and therapeutic engagement. Future investigations should refine techniques tailored to individual disorders, develop structured protocols for clinical or gallery use, and harness both physical and digital exhibition platforms to broaden dialogue between sufferers and society.